

불기 2562년 종단협, 제4차 이사회 회의

불교총지종 인선 정사, 해외불교 교류 진행건 심의



총기 47년 7월 10일 14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 불교총지종 통리원장 인선정사를 비롯한 한국 불교 주요 종단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종단협)는 이사회를 열고 하반기 주요 추진 과제들을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종단협 회장 설정 스님은 “우리는 부처님 제자로서 부처님의

이상을 사회에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임을 갖고 순례도 하고 법회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장 국민들과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 세상의 가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며 인사말과 함께 이사회를 열었다.

종단협은 먼저 화원종단과 화합, 우호증진을 위한 제5회 해외 불교 순례 행사를 16일부터 20일까지 몽골에서

진행 결정했다.

19개 종단에서 37명이 참석하여 몽골 울란바토르와 테를지 지역을 방문하여 주요 불교 유적지들을 둘러본다.

한중일 불교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는 오는 9월 11일부터 15일까지 “현대의 활용 가능한 불교의 자비심”을 주제로 일본 고베에서 개최된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대표단 백여 명은 3국 교류위원회의, 세계 평화 기원 법회와 국제 학술 강연회 등에 참석해 한중일 불교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할 예정이다.

2006년을 시작으로 3년 주기로 개최되고 있는 세계불교포럼은 오는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중국 복건성 보전시 광화사에서 제5차 세계 불교포럼이 개최된다.

이번 포럼에서는 불교와 해상 실크로드, 공익 자선, 환경보호 등의 주제가 다뤄질 것이라고 종단협은 전했다.

취재=강동화

경상북도 신도심에 “불교랜드마크 건설”

안동 신도심에 불교 문화공간 랜드마크가 들어선다

조계종 제16교구본사 의성 고운사(주지 호성 스님)는 6월 26일 도청 신도시 포교당 ‘녹야원’ 신축 기공식을 개최, 성공적인 건축불사를 위한 희망의 첫 삽을 떴다.

녹야원은 경상북도에서 도청 이전과 함께 조성된 신도시 내 종교용지에 자리했다. 대지면적 5387㎡(약 1630여평)에 건립되는 녹야원은 지상 3층 지하 1층으로 건축면적 1247.09㎡(약 377여평) 연면적 2768.97㎡(약 838평) 규모다. 지하에는 식당과 다목적플라자, 1층엔 어린이집·공연장·카페·종무소·주지실이 들어선다. 2층은 템플스테이 공간과 다목적실, 3층에는 법당과 소법당 그리고 전시실과 세미나실 등이 조성된다. 2020년 완공될 예정이다.

고운사에 따르면 녹야원 건물 외관은 부처님의 눈썹을 닮은 초생달로 디자인됐다. 53개의 종이 기둥이 남쪽으로 설치돼 시시각각 빛의 조형미와 어울려 미술관 같은 느낌을 준다. 세계적



인 건축상을 8개나 수상한 윤경식 한국 건축 회장이 설계와 감리를 맡았다. 윤회장은 전통미와 현대적인 세련미를 조화롭게 구현하는 건축 기법으로 명망 높은 건축가다.

고운사 주지 호성 스님은 “의상대사의 화엄사상을 녹여서 구현한, 미래의 세대에 맞는 한국불교 사찰건축의 새로운 유형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불교문화와 명상프로그램으로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국제적인 문화 중심 도량으로서 녹야원 건립에 온 정성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관용 경상북도 도지사는 “도청 신도시 포교당 녹야원이 무사히 준공되어 경상북도의 귀중한 기도처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기공식에는 고운사 회주이자 전 원로의원 혜승·주지 호성 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참석했다.

노회찬 의원 서거, 불교계도 침통

조선왕조실록환수운동 등 불교계와 함께 했던 진보 정치인



노회찬 의원의 서거 소식은 불교계에도 비통함을 전했다. 노 의원은 무교였지만 조선왕조실록 환수 운동, 친일 파재산환수특별법 촉구 등 불교계와 크고 작은 발걸음을 함께 해왔다. 지난 2006년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조선왕조실록 환수에 앞장섰던 노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그는 불교와 함께 정부의 불합리함에 맞섰고, 친일청산을 부르짖던 불교와 촛불을 들었다. 민족의 문화유산인 ‘조선왕조실록’ 환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일본으로부터 돌려받게 만든 산

증인이기도 하다. 2006년 4월 일본 도쿄대에 소장된 오대산 사고에서 반출된 ‘조선왕조실록’을 되찾기 위한 국회의원 모임의 중심에 섰다. 이보다 앞서 조계종 평창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과 남양주 봉선사 주지 철안 스님을 공동의장으로 하는 조선왕조실록 환수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일본대사관에 반한요구서 전달하기도 했다.

불교가 거리로 나서 사회에 제 목소리를 낼 때에도 노회찬 의원은 동행했다. 2005년 조계종과 민족문제연구소가 공동주최한 친일파재산환수특별법

촉구 ‘조계사 촛불집회’에서 촛불 들고 함께했다.

노회찬 의원은 큰스님들과 인연을 중요하게 여겼다. 입적 소식이 들리면 흘러들지 않고 어김없이 애도를 표했다. 지관 스님 입적에는 트위터와 별개로 통합진보당 차원 애도문을 내고 대변인으로서 스님을 추모했다.

2010년 시대의 스승이었던 ‘무소유’ 법정 스님 입적을 접한 그는 진보신당 대표로서 “사회의 정신적 지도자 한 분을 잃었다는 점이 매우 안타깝다”며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면서 참된 삶의 길을 가르쳐 오신 스님의 입적 앞에 고개 숙여 조의를 표한다. 영원한 무소유의 길에서 영면하시기를 바란다”고 법정 스님을 기렸다.

불심에 고마움을 여러 차례 표했던 정치인이기도 했다. 2009년 5월 4·29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조승수의원과 함께 지관 스님을 예방해 감사인사를 전했으며, 2012년 국회의원 당선 이후 홍국사 사찰을 참배했다.

노 의원의 비보에 마성 스님은 SNS에 “우리는 또 한 사람의 정직하고 양심적이었던 정치가를 잃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포항 보경사 비로자나불도, 보물 지정예고

조선후기 불화 연구의 귀중한 작품 “비로자나불도”

문화재청은 18세기 불화 포항 보경사 “비로자나불도”를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포항 보경사 비로자나불도는 1742년(영조 18년) 조선 후기 경상도에서 활동한 세 명의 불화승이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고자 그린 작품이다. 높이 3m에 가까운 대형 삼배 바탕에 붉은 물감을 칠한 뒤 인물과 의복 등을 흰색 물감으로 그린 불화이다.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그 주위를 문수보살, 보현보살과 사천왕상 등 권속들이 둥글게 에워싼 원형 구도로서,

이렇듯 비로자나불을 단독으로 주존 불로 배치한 불화 중에는 이 작품이 가장 이른 시기에 해당한다.

‘보경사 비로자나불도’는 시작적인 오묘함과 조화로운이 돋보이는데다 제작 시기와 제작자가 뚜렷해 조선 후기 불화 연구의 귀중한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문화재청은 ‘포항 보경사 비로자나불도’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우리말 팔만대장경 스마트폰에서 만나다

대한불교청년회, “우리말 팔만대장경” 애플리케이션 출시

대한불교청년회(회장 김성권)가 6월 27일 스마트폰을 통해 경전을 읽어주는 ‘우리말 팔만대장경’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했다.

대불청은 경전 한글화 사업에 매진했던 만해 스님 정신 계승과 스마트폰을 활용한 포교 활성화를 위해 우리말 팔만대장경 애플리케이션 제작에 나섰다. 이번엔 출시된 우리말 팔만대장경은 팔만대장경의 모든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텍스트를 음성으로 지원하는 TTS(Text To Sound) 서비스를 통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가용을 운전할 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시각장애인들의 경우에도 쉽게 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직접 음성 녹음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의 기능을 보강할 예정이다. ‘우리말 팔만대장경’은 앱스토어, 구글플레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산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이름 올리다

산사 7곳, 세계적으로 역사적 가치와 아름다움을 인정받아

통도사와 법주사 대흥사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 산사 7곳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이름을 올렸다.

우리나라의 전통 산사는 민족의 정신적 가치를 지켜온 대표적인 문화유산을 넘어 세계적으로도 역사적 가치와 아름다움을 인정받게 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바레인 수도 마나마에서 열리고 있는 ‘제42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을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할 것을 6월 30일(현지시간) 최종결정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이름을 올린 사찰은 모두 7곳으로 양산 통도사, 영주 부석사, 보은 법주사, 해남 대흥사, 안동 봉정사, 공주 마곡사, 순천 선암사이다.

앞서 세계문화유산 후보지를 사전 심사하는 세계유산위원회 자문기구 이코모스, ICOMOS는 우리나라가 신청한 7곳 가운데 봉정사와 마곡사, 선암사는 역사성 부족 등을 이유로 등재 보류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은 문화재청, 외교부와 함께 세계유산위원



회 위원국들을 대상으로 7개 산사 모두가 등재돼야 유산의 가치가 제대로 드러날 것이라고 설득해 21개 위원국 모두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모두 13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고 불교 관련 세계 유산은 ‘석굴암·불국사’와 ‘해인사 장경판전’ 등 3곳으로 늘어났다.

이병현 유네스코 대사는 “위원회 여러분 감사합니다. ‘산사(山寺), 한국의 산지승원’ 문화유산 등재에 대한 폭넓

은 지지 감사드립니다. 이번 결정으로 산사는 세계문화유산 가운데 하나가 됐습니다.”며 전했다.

조계종 문화부장 종민 스님은 “이번 등재는 한국 사찰이 오랫동안 그 역사성을 지키며 살아있는 문화유산으로 존재함을 전 세계가 인정하는 자리라고 봅니다. 7개의 사찰과 추진단을 대표해 산사가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외교부, 문화재청 등 정부 기관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며 전했다.



법상인 전수의 總持法藏

부처님의 생애와 열반의 의미

우리가 문학을 포함한 다양한 콘텐츠 안에서 만나는 부처님은, 굉장히 특별한 모습으로 그려 집니다. 선택받은 존재인양, 때로는 신의 아들 이라도 되는 듯, 초인적인 부분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부처님은 그렇게 특별하고 유별난 존재가 아닙니다.

다만 평범한 사람들이 하지 못했던 깨달음, 그 깨달음을 통해서 부처가 되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부처라는 이 단어는 Buddha (붓다)에서 유래하였는데, 사람들이 부르기 쉽게 우리 식의 발음으로 변화된 것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부처님은 35세에 깨달음을 얻었고, 이 깨달음으로 인해 Buddha, 즉 부처라는 이름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0세에 세상을 뜨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처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다음의 45년간이 부처로서의 활동 기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부처님은 자신이 깨달은 바를 45년간 씬 없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전파하는데 애썼습니다. 그 결과 많은 제자들이 불교에 귀의하기 시작했고 자연스레 불교문화라는 것도 형성되었습니다. 당시의 경향을 보면 종교를 전혀 지니지 않은 사람이 불교에 들어오기보다는, 기성 종교에 이미 몸을 담고 있던 사람들이 불교로 전향한 경우가 많았다는 게 흥미롭습니다. 불교세력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후부터는 늘 1,200명 정도의 제자들이 부처님을 항상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제자들은 천민부터 고위직 대신과 왕족에 이르기까지 출신계급의 폭이 넓고 다양했습니다. 이는 부처님의 제자가 되는데 신분의 제약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실제로도 귀의 후에는 부처님 안에서 모두가 동등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신분이나 직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차등 없이 서로를 대했습니다. 정말 그랬는지는 ‘우바리’ 일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 뛰어난 10명을 뽑아 10대 제자라고 일컬었는데 그 중 하나의 이름이 ‘우바리’였습니다. ‘우바리’의 직업은 이발사였는데, 그 때의 이발사는 천한 하층 계급에 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처님의 제자가 되는데 어려움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우바리’보다 더 늦게 부처님의 깨달음을 만난 일곱명의 출신 계급은 왕자였는데, 언제나 ‘우바리’가 일곱왕자 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았다고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먼저 받은 이가 ‘우바

리’였던 까닭입니다. 이는, 신분에 따라 행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행위에 따라서 신분이 달라짐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혈통으로 인해 무언가가 정해져 있는 일은 없습니다. 신분으로 인한 벽 또한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본인의 마음이나 행동으로 인해 신분이 정해질 수는 있습니다. 양반의 행동은 양반을 만들고, 천민의 행동은 천민을 만듭니다. 부처님은 시시때때로 자신의 이러한 신념을 강력하게 전파했습니다.

부처님은 당시 인도 사회 전체에 대해서도 인간은 모두가 다 평등하고 동일하다는 의견을 펼치지 않았고 피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때로부터 2,500년이 지난 오늘날의 인도 모습은 어떤가요? 부처님의 바람대로 되었나요? 여전히 엄격한 계급사회로 이루어져있고, 그로 인한 차별과 폭력이 만연한 인도의 현실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물론, 인도 헌법 안에서는 모두가 같은 권리와 의무를 지니고 차별은 존재할 수 없다고 단언하고 있지만, 실제의 사회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직업의 귀천도 엄연히 존재하고 출신 환경에 따라 균등한 기회 분배에도 분명한 제약이 있습니다. 출발선이 다르고, 도달 가능한 도착선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인도의 청년들에게 미래에 대한 좌절은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할 수 있는 한 많은 제가불자들이 자신의 가르침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부처님 스스로 출가하지 않았다면, 세속적인 안락함과 편안함을 마음껏 누릴 수도 있는 환경이었지만 결코 자기 이익만을 도모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들이 바른길을 걸을 수 있도록, 부처님 자신처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모든 여력을 쏟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생애는 위대한 것입니다. 부처님은 그렇게 다른 사람의 고통을 염려하고, 일생을 교화에 전념하는 위대한 삶을 살다가 80세에 열반에 듭니다.

‘열반에 드셨다.’ 우리는 이 표현을 보통 누군가가 세상을 떠났을 때 자주 사용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따지자면, 열반과 죽음에는 그다지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많은 번뇌를 가지고 있고 이 번뇌들은 제각각 저마다의 작용을 합니다.

이를테면, 어리석음의 작용, 욕망의 작용, 분

노의 작용, 질투의 작용 등입니다. 이와 같은 번뇌들이 없어지는 상태를 ‘열반’이라고 합니다. 초기 불교에 있어서 불교인들이 도달되어야 할 궁극적인 목적이자 이상향은 바로 ‘번뇌가 없는 상태’였지만, 이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이 땅에 발을 딛고, 호흡을 하고, 음식물을 섭취해야 삶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제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난 종교인이라고 한들 땅에 발을 딛지 않고, 호흡을 하지 않고,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최소한의 의미 안에서 활동을 즐기고 산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는 늘 번뇌라는 것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입어야 하고, 먹어야 하고, 자야 하는 의식주(衣食住)는 번뇌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깨달았다고 한들, 깨끗한 마음만 남아있다고 한들 번뇌까지 완전히 소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번뇌가 없어진다는 것은, 육체가 없어진다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육체가 없어진다는 것은 죽음을 뜻합니다. 죽기 전에는 욕망이 없어질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 때문에 죽음은 완전한 열반이라는 말로 표현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만,

불교의 최종목적은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이는 ‘해탈’이라는 단어로 설명되기도 합니다. 불교는 광범위한 지식보다는 깨달음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종교입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일단 자신의 행동을 바르게 하고 계율을 잘 지켜야합니다. 바르고 좋은 습관을 익히는 것을 선계, 비뚤고 나쁜 습관을 익히는 것을 악계라고 하는데, 건강한 정신은 건강한 육체에서 비롯되고, 건강한 육체는 선계가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정신의 건강성을 위해서는 행동을 바르게 해야 함을 명심해야합니다. 진리라는 것은 마음을 통일하는 정신 작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의 대상에 정신을 전념하는 것은 마음을 맑게 만들어줍니다.

이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고, 바야흐로 지혜는 깨달음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생애와 함께 열반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며 깊고 깊은 종교생활이 될 수 있기를 서원합니다.

칼럼 지혜의 눈

허수아비와 무아, 그리고 법신·화신

“주체성 부족한 허수아비 같은 삶 벗어나려면”

“무아(無我)의 중도행 수행자가 법신이요 화신”

몸과 마음을 쉴 수 있는 여름 휴가철이지만 급변하는 정세 속에 이래저래 어수선하게 느껴지는 시절이라 마냥 쉴 수만은 없는 것 같다. 그래도 우리가 한 생각 돌이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갖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다.

우리는 밀물처럼 다가오는 복잡다단한 일들에 마주치고 현장의 상존하는 고통들에 직면할 때 여유를 갖기가 쉽지 않다. SNS 때문에 예전에는 모르고 넘어갔을 법한 일들도 고스란히 접하게 되니 괴롭힘까지 느낄 수 있다. 또 그러한 고통을 벗어나려는 사람들의 고통을 목격하고도 뚜렷한 대책을 찾지 못할 때 무력감을 느낄 수도 있다.

그래서 보통은 코앞에 놓인 일들을 처리하기도 바쁘다는 핑계 속에 그저 바라보기만 하지는 않나 싶다. 진실을 애써 외면하고 진실이 밝혀지기를 그저 기다리거나 강요된 침묵의 분위기 속에서 원자처럼 고립된 상태에 있지는 않나 싶다.

삶의 욕구들이 생생하게 부딪히는 현실에서 과연 나는 어떠한 가치를 지켜내고 있는지 돌아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다. 뚜렷한 판단을 가지고 응당 항거해야 할 상황도 있을텐데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때도 많기 때문이다.

주체적인 사고를 하지 못할 때 우리는 허수아비 같은 존재로 전락할 수 있다. 자기 목소리를 집단적으로 내는 시위현장을 가보면 대개 목소리 큰 쪽이 이긴다며 외쳐대는데, 잘 보면 자기논리에 취해 상대를 규탄하거나 자기 뜻과 무관하게 남의 주장을 추종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어떤 대가 때문에 시위에 참여하거나 시위를 막는데 참여하기도 한다. “참 허수아비 노릇 하기 힘드네” 하고 탄식하는 소리가 들리기도 한다.

허수아비라는 얘기를 들으니 불교의

‘무아(無我)’가 떠오른다. 무아의 행을 하는 이는 자기 뜻을 벗어나 남에게 조종당하는 일은 결코 하지 않을 터이니 허수아비와는 한참 거리가 멀지 않은가. 그는 정견(正見)을 가지고 소신 있게 행동하는 양심일 것이다.

그런데 무아행이라고 할 때 꼭 ‘자기생각’대로만 움직이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대중이 원할 때는 자기 이익을 내버리고 대중을 위한 일에 매진할 수 있다. 그럴 때는 허수아비라기보다 붓다의 화신(化身), 여래사(如來使)의 역할을 자임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얼마든지 내 입장을 고집하지 않고 상대의 뜻을 따라줄 수 있다. 수업을 잡아채는 철없는 어린 손자에게 화내기보다 귀여워 어쩔 줄 모르는 할아버지를 보고 누가 허수아비 같다고 비난할 수 있는가. 자기이익을 고집하지 않고 상황에 순응하는 여유를 지닌 무아의 행이 바로 그런 것 아닐까.

흔히 중도(中道)는 양변을 여의는 것이라고 설명된다. 그런데 양변을 꺾어안는다고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하는 어느 분의 말씀이 생각난다. 거문고의 느슨한 줄이 잘 조율될 때 나는 소리를 중도라고 할 수 있지만 느슨한 줄이더라도 심지어 거문고 줄이 끊어졌을 때조차 나름의 훌륭한 음악을 창조해 낼 수 있다면 그 또한 멋진 중도일 수 있지 않을까.

어떤 하나의 입장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에 집착한다면 중도일 수 없음을 안다면 배타적인 입장으로 흐르지 않는다. 자와 포살을 통해 늘 기존 입장을 벗어나 새로운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 때는 허수아비의 옷을 뒤집어 쓴 보잘 것 없는 존재가 아니라 무아의 중도행을 수행하는 법신(法身)이요 화신(化身)이 아닐까 싶다.(끝)

김봉래(불교방송 선임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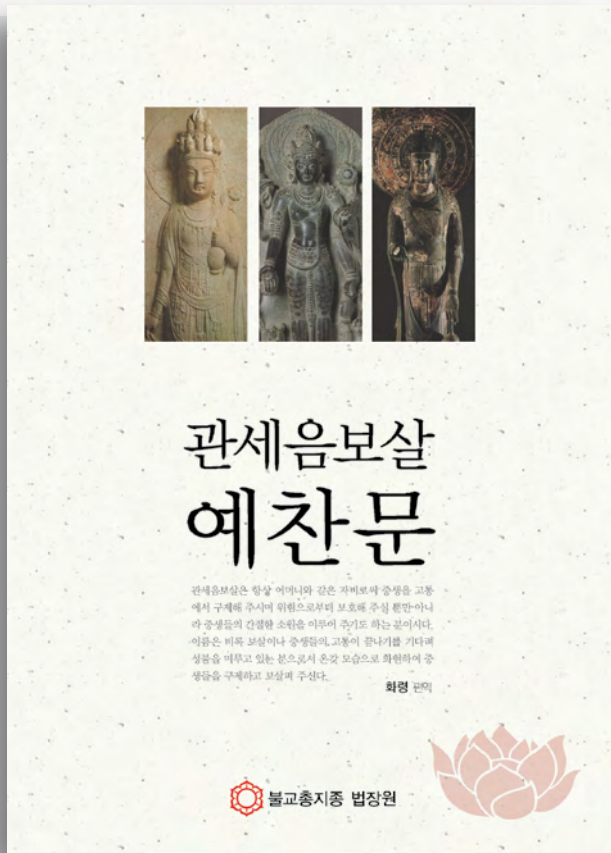
이 책을 읽으면 관세음보살의 가피가 저절로!!!

관세음보살 예찬문

"대자대비 구고구난 관세음보살 은화하신 자비 광명 은누리 비추시네
무명 중생 괴로움 모두 살피사 빠짐없이 골고루 건져주시네"



- 관세음보살은 누구인가?
- 관음경
- 천수경
- 신묘장구대다라니 해설
- 관세음보살 관련 각종 진언
- 음마니반메혹의 의미와 수행법



화령 편역 | 불교총지중 법장원 발행



《관세음보살 예찬문》 법보시로 무량백덕 쌓으시기를...문의전화 02-552-1080

총기 47년, 호국안민기원 대법회 봉행 부산경남·대구경북 교구, “나라 사랑과 국민 평안 기원”



총기 47년 7월 16일 하반기 49일 불공 회향일을 맞아 전남 순천시 청소년 수련원 실내체육관에서 호국안민기원 대법회가 봉행됐다.

부산·경남교구와 대구·경북교구가 함께한 이번 법회는 각 사원 스승과 교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 봉행됐다.

총지종 종령 법공 대종사는 법어를 통해 “호국이란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법과 규범을 준수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며 민주시민의 의식과 정신을 함양하는 불공이기도 합니다. 나아가 참다운 불자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모범을 보이는 불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봉행하는 호국안민기원 대법회도 바로 그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며 법회의 의미를 전했다.

대구·경북 교구장 안성 정사는 발원문을 통해 “원하오니 이 공덕이 널리 미쳐져서 모두가 해탈을 얻게 하시고, 왕생극락 이르게 하소서.”라고 발원하였다.

부산·경남 교구장 정인화 전수는 “오늘 하반기 49일 불공을 회향하면서 호국안민기원대법회를 원만히 봉행하게 된 것은 스승님과 교도 보살님들의 용맹정진과 선업공덕 가지은덕이라 생각합니다. 각 사원과 가정마다 일체의 소원이 두루두루 성취되기를 서원합니다.”며 봉행사를 전했다.

이어, 부산·경남 황윤희 신정회 회장, 대구·경북 최윤정 신정회 회장의 축사가 있었다.

합창단의 아름다운 찬불가가 울려 퍼지며 1부 행사가 끝이 나고 2부에서는 풍물놀이, 장기자랑, 각설이 공연으로 놀이 한마당이 펼쳐졌다.

취재=강동화

제5회 청소년 바른인성 형성 프로그램 시행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참된 나를 찾는 여행”

총지종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제5회 “청소년 바른인성 형성프로그램”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참된 나를 찾는 여행’, ‘명상’, ‘인성 형성 교육’, ‘청소년 마음 캠프’ 등을 통해서 이들이 바른인성을 형성하고 삶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여, 자기 자신, 타인 그리고 세상에 대한 사랑으로 마음을 가진 훌륭한 사회인으로 자라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모집기간은 7월 16일부터 12월 15일 중 1박 2일간 자유선택이다. 모집대상은 초·중·고·대학생(4학년이상), 중·고·대학생 선착순으로 누구나 가능하고 4~8명 팀으로 구성해서 참가할 수 있다. 참가팀에게는 1인당 8만원의 여행경비가 지원된다.



▲ 2017년 참된 나를 찾는 여행(동해중) 참가팀

여행 날짜, 장소, 일정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반드시 멘토(20세이상) 1인과 함께 동반하여야 한다.

“참된 나를 찾는 여행” 담당 김평석 계장은 프로그램에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는 명상시간, 인생의 교훈을 들 수 있는 사람들(선지식, 향토사학자 등)과의 만남의 시간, 멘토와의 대화

시간은 여행계획서 필수조건”이라며 반드시 포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여행을 다녀와 다른 팀과 여행 공부를 할 수 있는 한마음캠프도 계획되어 있다. 장소와 날짜는 추후 다시 공지할 예정이며, 겨울방학 중에 2박 3일 동안 진행할 예정이다.

정각사, “카빙데코레이션 수업” 7월 여름특강 한국화반 회원들의 “수박 카빙데코레이션”



▲ 수박을 이용한 카빙데코레이션 작품

부산 정각사에서 한국화반(천아트) 회원들 요청에 의해 10명으로 구성된 “카빙데코레이션”특강반을 개설하였다. 7월 특강으로 카빙데코레이션 수업

이 매주 수요일 12시부터 15시까지 진행되고 있다.

카빙데코레이션은 식공간을 그 목적과 음식에 맞는 이미지 연출로 시각을

자극시켜 음식의 질을 한층 높여주고, 먹는 사람의 눈을 즐겁게 해주며, 식욕을 좋게 만드는 요인으로 소비자들에게 시각적인 즐거움을 제공한다.

정각사 한국화반 회원들은 “수박 겉면의 진녹색, 속의 연두, 빨강색들이 조화되어 다양한 더운 여름아트 수업으로는 최고인 것 같습니다.” 특강이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라고 전했다.

장마를 끝으로 폭염더위가 시작되는 때 정각사는 카빙데코레이션 수업을 통해 시원한 여름을 보내고 있다.

정각사=이상록

교계 신문에 부처님의 법을 설하다 법경 밀교연구소장, 『주간불교』에 법문 연재



총지종 밀교연구소장 법경 정사가 지난 5월부터 교계 언론지인 『주간불교』에 매월 연재형식으로 법문을 설하고 있다. 종단 내에서 뿐만 아니라 불교신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는 평이다. 연재되는 내용은 불교교리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게 설

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인간의 참다운 삶’을 주제로 법문을 하였다. 인간다운 삶은 나와 모든 사람이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라며 자비를 실천하는 삶이라고 하였다. 구체적인 실천으로 육바라밀을 제시하였다.

6월의 연재에서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삶의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질

문을 던지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해답을 제시하였다. 신구의 삼업의 청정과 마음 다스리기를 제안하였다. 마음을 잘 닦으면 그것이 행복이고, 마음을 제대로 닦지 못하면 그것이 불행이며, 마음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면 곧 마음에서 얻는 행복이자 잘 사는 길이라고 말하였다. 7월의 법문에서는 ‘괴로움, 고통 줄이기’를 주제로 삼았다. 고통과 괴로움을 완전히 없앨 수 없지만 줄일 수 있다고 진단하였다. 먼저 고통과 괴로움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고통을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그리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가운데 고통과 괴로움은 줄어든다는 것이었다.

총기 48년 예산자료수집

통리원은 총기 47년도 추가경정 예산과 총기 48년도 본예산안을 보다 충실히 편성하기 위하여 예산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9월 1일까지 예산 신청을 접수 받는다.

총기 47년 스승교육 실시 (2018. 7. 18 ~ 19)

양지동 제1복지회관, 복을 나누는 행사 복달음 행사 “삼계탕 데이” 마련



사회복지법인 불교총지종 성남 양지동 제1복지회관에서 18일 초복을 맞아, 지역 어르신과 주민의 건강한 여름나

기를 위해 복달음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폭염속에 무더운 여름을 지내고 계신 지역 어르신 100여명과

지역주민 봉사자 10명, 유관기관 종사자 20명들이 한 자리에 모여 삼계탕과 시원한 수박, 떡 등을 준비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복지회관 정동숙 기관장은 “어르신들과 지역주민이 삼계탕을 드시고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잘 이겨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무더운 여름날 몸 건강히 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통리원=김태원

정각사 단월회

정각사 남자 교도들로 구성된 단월회는
자성일 불공 후 친목도모와 봉사 및 후원 활동을 합니다.
♣ 교도들의 각자님과 자제분의 입회를 환영합니다 ♣

회장 : 강경중 / 총무 : 김진화



■ 부산시 동래구 시실로 19-9 (명륜동 8-8) ■ 전화 : 051-552-7901

동해중 소식

학부모를 대상으로 유명 문학인 초청 강연회를 개최



지난 7월 13일 동해중학교(학교장 탁상달)에서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유명 문학인 초청 강연회를 실시하였다. 강사는 경남 함양 출생의 수필가이

자 시인이며 동아대 문예창작과 교수로서 ‘염낭거미’, ‘손님별’, ‘점바치 골목’ 등 많은 시집을 남겼으며 현재 문학도시 편집국장 및 주간지인 ‘뉴에이지’ 편집주간이기도 한 우아지 작가로 “희스토리가 있는 시조 감상”이란 주제로 발견과 리듬의 이미지를 비롯하여 고전 시조 10편을 지은이의 인생관과 대비시켜 강의를 재미있게 해 주었으며, 현대시조 15편 등을 강의할 때는 지은이의 습작 무용담을 이야기와 함께 곁들여서 실감나게 강의를 해 주어서 참석하신 70여명의 학부모님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특히 문학인의 애환과 삶이란 부분의 내용을 강의할 때는 학부모님들 모

두가 숨소리조차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깊은 관심을 나타냈으며 마치 청춘 시절의 문학소녀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받았다. 본 초청 강연회를 통하여 학교에서는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학부모는 물론이고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명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문학뿐만 아니라 진학, 과학, 정보, 환경,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대한 미래의 비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초청강연회를 개최하여 동해중 교육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전문 소양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강의를 편성하여 시행할 예정으로 있다. 동해중 교장 탁상달

손 안에 보이는 세상

News Finder

폭염에 온열질환자 61% 급증

숨막힐 듯한 불볕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1%(397명) 증가했다. 신고된 온열질환 중에서는 열탈진(52.3%)이 절반 이상이었다. 이어 열사병(25.1%), 열경련(11.8%), 열실신(7.5%) 순이었다. 발생 장소는 야외 작업(292명)이나 논·밭일(162명) 등이 43.5%로 가장 많이 차지했고 길가나 공원 등에서 야외 활동을 한 경우도 420명으로 40.3%였다. 실내에서 보고된 경우도 169명(16.2%)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때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증상이 나타나고, 방치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폭염 시에는 갈증을 느끼기 이전부터 규칙적으로 수분을 섭취해야 하고 어지러움과 두통, 메스꺼움 등

온열질환 초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휴식을 취해야 한다. 가능하면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위험시간대' 활동을 줄이고, 활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쥘 댕은 모자와 밝고 헐렁한 옷 등을 착용해 온열질환을 예방해야 한다. 술 또는 카페인 음료는 체온 상승이나 이뇨 작용을 유발하므로 폭염 시에는 생수나 이온음료 등을 마시는 게 좋다. 어린이나 노약자는 일반 성인보다 체온조절기능이 약해 온열질환에 더욱 취약하므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집안과 차 등 창문이 닫힌 실내에 어린이나 노인을 홀로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또 심혈관질환이나 당뇨병, 뇌졸중 등이 있는 사람은 폭염에 더 취약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박남오 기자



컴컴한 동굴속에서 큰 빛을 발한 명상 리더십

불안에 떠는 아이들 명상교육으로 마음 안정
명상리더십 핵심 요소는 ‘동사’와 ‘사섭법’

얼마 전 태국 북부 치앙라이주의 탐루앙낭는 동굴서 ‘무 빠(야생 멧돼지)’ 축구 아카데미 소속 유소년 축구선수 12명과 코치가 조난 났다가 구조대와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약 2주 만에 전격 구출돼 온통 세계 외신들의 주목을 받았다. 워싱턴포스트지에 따르면 소년들이 추위와 부족한 산소, 그리고 동굴 내의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생존 가능했던 것은 코치의 명상리더십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수행자 출신인 역가본 찬파웁(25) 코치의 명상과 마음 다스리기 교육이 큰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다. 그 이후 지금까지 다른 매체들도 자기 마음의 안정을 기반으로 대중의 불안한 마음을 편하게 바꾸어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케 하는 ‘명상리더십’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명상리더십의 중요 요소는 많지만 이번 조난 극복 과정은 사섭법과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동굴서 아이들을 돌본 역가본 코치의 희생과 지도력에 대해 언급한 군의관은 “음식이 공급된 후 역가본 코치는 아이들이 충분히 식사할 때까지 기다린 뒤 자신의 음식을 나눠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코치는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양보한 후 자신은 거의 공복 상태에서 버텼다고 한다.

배고픔은 생존과 관련된다. 생존 욕구가 발동하면 자신부터 먼저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절대절명의 위기 순간에 자신의 것마저 오히려 아이들에게 건네며 다독인 것은 보시가 생활화된 명상 리더십의 좋은 본보기이다. 그리고 마음 다스리는 법을 유소년 선수들과 함께 한 것은 법보시를 통해 소년들의 마음서 두려움을 감소시키는 ‘무외시’를 실천한 것이다. 아이들의 증언을 토대로 코치의 명상 리더십은 깊은 감동을 전한다. “역가본 코치는 우리들에게 명상으로 마음의 안정을 찾고, 체내에 에너지를 축적하는 방법을 가르쳤다. 또 하루 먹을 과자의 양을 정해놓고, 복통을 일으킬 수 있는 흙탕물 대신 동굴 천장에 맺힌 맑은 물을 마시라고 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코치의 대화 기술이다.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흥분하지 않고 필요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전달한다. 그 바탕에는 팀원들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 자리 잡고 있다. 외신 보도를 참조해 보면 “깜깜해 밤낮을 구분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아이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3일째쯤 났을 때부터 배고픔을 견디기 어려워 일부는 소리 내 울기도 했다. 역가본 코치는

이런 아이들을 안아주며 안심시켰고, 추위로 잠 못 이루면 잠 들 때까지 안고 있었다”고 한다. 심리치료 기법 중 ‘안아주기’의 효과는 매우 좋고 크다. 엄마의 안아주기는 사랑을 내재화하여 아이를 성장시키고, 가정의 안아주기는 사회성을 내재화하여 관계를 성숙시킨다. 코치의 안아주는 상대를 이롭게 하는 행위인 ‘이타와 이행’의 실천인 것이다. 덕분에 차츰 안정을 찾은 소년들은 좁은 공간서 체온을 유지했고, 결국 생사의 기로에서 무사히 생존할 수 있었다. 이렇듯 명상리더십은 큰 위기 속에서 빛을 발했다. 그리고 그 요소인 ‘동사’와 ‘사섭법’의 의미도 다시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동사’는 명상리더십의 화신인 보살이 중생과 일심동체가 되어 고락을 함께 하고 화복을 같이하면서 그들을 깨우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적극적인 실천행이다. 또한 사섭법은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구하는 명상리더의 반야용선이 아닐까 생각된다. 한편 불교식 명상으로 생활가능해시킬까?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온 그들이 처음이자 마지막인 기자회견을 마치고 제일 먼저 향한 곳은 사찰이었다. 두

손을 모으고 경건한 표정으로 기도하는 소년들. 이들이 그간 삶과 죽음의 순간을 함께 한 것을 상징이라도 하듯, 스님들은 소년들 머리와 팔에 하얀 실을 묶어 서로를 이었다. 이른바 ‘운명을 연결한다’는 의미를 담아 열린 종교 의식으로, 스님들은 소년들에게 앞으로 더 이상 불행한 일이 없기를 기원했다. 또한 12명의 태국 소년들이 구조작업 도중 사망한 태국 해군 출신의 잠수구조대 ‘사만 쿠난(Saman Kunan)’에 대한 애도와 극락 왕생을 발원한다는 차원에서 함께 즐거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죽음의 문턱에서 무사히 살아 돌아온 이들이 그 어두컴컴한 동굴 속에서 깨달은 것은 무엇일까? 정신만 차리면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살 수 있다는 희망일까, 아니면 모든 것은 마음먹기 나름이라는 ‘일체유심조’의 진리일까. 일반인들보다 훨씬 고통스럽고 힘든 경험을 통해 생명의 고귀함을 전 세계인들에게 몸소 보여주었듯, 출가를 한다면 또 한 번 우리 중생들에게 깨달음의 지혜를 전하는 훌륭한 수행자로 거듭나길 응원한다.

김주일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장

빈곤층, 10월부터 부양가족 있어도 주거비 지원

정부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기초생활보장 중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오는 10월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충족하고도 아들이나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자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우선 폐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이 큰 가구를 해소하기 위해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주 중위소득 43% 이하’에서 202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 45%’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수급가구의 실제 임차료 부담과 건설공사비 상승 등을 고려해 임차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지급 상한액과 자가 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 지원 상한액도 올려주기로 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이 포함돼 있으면 부양의무

자 기준을 폐지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지원하고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는 소득·재산 하위 70% 속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이가 2019년 1월부터는 수급자가구 특성과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재산 하위 70%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2022년 1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이 포함된 경우에도 생계·의료급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부양의무자 제도는 재산이나 소득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해도 일정 수준 이상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자녀 등 가족이 있으면 수급을 받을 수 없어 복지 사각지대의 원인으로 꼽혔다.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이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된다. 예를 들어 아들·딸이 사망하면 며느리·사위는 부양의무자에서 빠진다.

박남오 기자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후원에 감사합니다

6월 21일 ~ 7월 20일까지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복지사업에 소중히 쓰여집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명을, 통신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7668610
- 우리은행:122-177171-13-104 ●예금주: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 사회복지 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개천사	김위식	7/2	60,000
	전세형	7/5	30,000
관성사	인선	6/25	20,000
동해사	탁상달	7/10	20,000
만보사	정덕순	7/11	30,000
	김강미자	6/29	10,000
	신운산	7/11	10,000
백월사	진평	7/17	5,000
	반아심	7/2	10,000
법천사	박미경	7/18	10,000
법황사	정순득	7/16	10,000
수인사	이순옥	7/6	10,000
실보사	유승태	7/13	10,000
	김문수	6/21	10,000
정각사	안한수	7/7	10,000
	승효제	6/22	10,000
지인사	원당	7/9	10,000

총지사	묘심해	7/9	10,000
	손경옥	7/16	10,000
	박정희	7/17	10,000
	신용도	7/17	10,000
총지사	이수경	7/17	10,000
화음사	최영미	7/10	50,000
	강승민	7/10	5,000
	강승훈	7/10	5,000
	무명씨	7/20	10,000
흥국사	지정	6/22	40,000
	원봉	6/22	20,000
기로스승	지선행	6/22	20,000
	상지화	6/25	10,000
	수증원	6/25	10,000
	밀공정	6/25	10,000
	총지화	6/25	10,000
	법수원	6/25	10,000
	기로스승	7/9	10,000
	기로스승	7/9	10,000

기로스승	선도원	6/25	10,000
	법지원	6/25	10,000
	일성해	6/25	10,000
	불멸심	6/25	0,000
일원어린이집	사홍화	6/25	10,000
	안주화	6/25	10,000
	해정	6/28	10,000
	하재희	6/25	50,000
잠원햇살어린이집	구미자	7/2	10,000
	김선희	7/10	50,000
초록어린이집	황화성	6/27	50,000
	손재순	6/25	50,000
사원명무기명	정상철	7/13	20,000
	김갑선	7/19	10,000
	이희우	7/20	20,000
개태사	무명씨	6/27	50,000



원당정사
밀교경전 읽기 15

『대승장엄보왕경』에서는 관자재보살의 명호를 염하여 얻는 공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능히 관자재보살마하살의 이름을忆념한다면, 그 사람은 내세에 태어나 늙고 병들어 죽는 윤회의 고통을 멀리 떠나서, 마치 거위왕이 바람을 따라 가는 것처럼 속히 극락세계에 왕생하여서 무량수여래를 만나 뵈고 미묘한 법을 듣게 되느니라. 이와 같은 사람은 길이 윤회의 고통을 받지 않고, 탐진치가 없으며 늙고 병들어 죽는 일도 없으며, 굶주림의 고통도 없으며, 태포에 태어나는 고통을 받지 않으며, 법의 위력을 받아 연화세계에 화생하느니라. 항상 그 국토에 거주하며, 이 관자재보살마하살을 만나 모든 중생이 구도되며, 모두가 해탈하게 되며, 견고하게 서원이 원만하게 되느니라.”

관자재보살의 염송을 통해서 극락세계에 왕생하여 모든 고액이 사라지고 해탈하게 된다고 설하고 있다. 이것은 현세적 이익의 성취뿐만이 아니라 『대승장엄보왕경』에서는 관자재보살이 극락왕생이라는 내세의 이익까지도 성취하게 해 준다는 점

이 관자재보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정토부 경전의 『무량수경』에서는 “모든 중생들이 그 명호를 듣고 환희하게 신심을 내어 내지 일념과 지심으로 회향하여 그 나라에 태어나기를 원한다면 곧 왕생함을 얻어서 불퇴지에 머무를 것이니, 다만 오역과 정법을 비방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하였다.

아미타불의 명호를 일념으로 지극한 마음으로 염하면서 서방정토에 왕생하기를 원한다면 그 나라에 태어나는 공덕을 얻는다고 설하고 있다. 이것은 아미타불을 지극한 마음으로 염하여 얻는 내세구원과 관자재보살의 내세구원 공덕이 같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즉 아미타불을 통한 정토왕생이 관자재보살을 통해서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근거는 어디에 있는 지 알아보기로 하겠다.

정토부 경전에서는 아미타불이 서방극락정토로 중생을 제도하는 것을 돕는 협시보살로 대세지보살과 함께 관음이 등장하여 아미타불을 돕는 조력자로 되어 있어 있지만 특히 대승 불교의 후기인 밀교시대에 이르러서



는 미타와 관음은 동일한 부처님이라는 교설이 등장한다. 즉 관음을 미타의 화현 또는 현현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관자재보살과 아미타불을 동일시하는 사상으로 볼 수 있다.

불공삼장이 번역한 밀교경전인 『반야이취경』을 풀이한 『반야이취석』에서는 미타와 관음을 동일시하여 극락세계에서는 아미타불로

불리지만 사바세계에서는 관세음보살로 나타난다고 설하고 있다.

“독자성청정법성여래는 관자재왕여래의 다른 이름이니, 즉 이 부처님은 무량수여래라 이름한다. 만약 청정하고 아름다운 불국토에 있으면 부처님 몸을 이루고, 잡되고 물든 오탁세계에 머물면 관자재보살이 된다.”

여기 미타와 관음은 한 몸이면서 두 몸의 부처님으로 나뉘시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두 분이 한 부처님이기 때문에 아미타불을 염하는 것이나 관자재보살을 염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이 극락세계에 왕생함을 얻을 수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대승장엄보왕경』에서의 관자재보살은 현세에서는 중생들의 일체의 고통을 덜어주어 안락하게 하고 해탈을 성취토록 하면서, 내세에는 극락정토에 왕생케 하여 성불로 인도하는 위신력을 지니고 있는, 현세와 내세의 복락을 위해 현세와 내세를 넘나드는 자유자재한 보살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내 떡보다 남의 떡이 더 크게 보인다

밀행사 주교 도현 정사

이상하게 내가 고른 옷보다 옆에 친구가 고른 옷이 더 좋아 보이고 내가 주문하여 내 점시에 담긴 피자조각보다 건너편에 앉은 다른 사람들의 점시에 올려진 피자조각이 더 맛있어 보인다. 남의 떡이 더 크게 보이는 이런 이상한 심리는 현실 속에서 수시로 발동한다. 가끔은 친구가 고른 옷이 더 좋을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선택한 피자가 맛이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남과 자신을 비교하여 항상 자신보다 남들의 선택이, 상황이, 모든 것이 자신 것보다 우월해 보이고 크게 보인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항상 남의 떡이 자신이 가진 떡보다 더 크게 보인다는 것이다. 인간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심이 남의 떡을 더 크게 만드는 것이다.

몇 년 전 충남 당진에서 그 지역에서 나는 쌀을 홍보하기 위해서 무게 3,680kg, 지름 3.7m, 높이 40cm, 둘레 11.3m 크기의 대형 떡을 20kg자루 쌀 125포대로 만들어 종전까지 일본 가무라푸드에서 만든 2,090kg의 ‘라지스트 가가미 모찌’를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큰 떡으로 기네스북에 올랐다고 한다.

인간은 20kg자루 쌀 250포대로 만들어진 세계에서 가장 큰 떡이 손에 있어도 여전히 남의 떡이 더 크게 보인다. 이는 인간의 끝없는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슬픈 현실이다. 남의 떡과 내 떡을 바꿔놓아도 역시 남의 떡이 더 크게 보인다.

남의 떡보다 내가 갖고 싶은 떡은 더 크게 보인다.

대상을 인식하는 지각은 있는 그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욕구나 동기 등의 영향을 받는다. 배고플 때는 아무것이라도 맛있다. 자다가 심하게 목이 말랐던 원효는 해골에 고인 썩은 물을 마시고 또 그 시원함을 감탄하며 다시 잠을 이루었다.

인간은 보이는 것을 보는 그대로, 들리는 것을 듣는 그대로, 느끼를 느끼는 그대로 인지하지 않는다. 보고, 듣고, 느끼는 그때의 상황이나 혹은 자신의 필요나 욕구에 따라 인지된 것을 변형시킨다. 비교하기가 애매모호 한 주관적

인 지각뿐만 아니라 정확한 상대 비교가 있는 고정된 물체의 부피 같은 것도 있는 크기 그대로 인지 하지 않고 주변 상황이나 자신의 욕구에 따라 그 크기를 달리 본다.

사물을 인지하는 지각도 당사자의 욕구나 동기에 따라 달라진다.

1974년 미국의 심리학자 브루너(J. S. Bruner)와 굿맨(C.C.Goodman)은 똑같은 대상을 보고도 각각이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지각)은 자신이 처해진 환경과 욕구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발한 실험을 했다.

유복한 가정과 빈곤한 가정에서 자란 지적수준이 비슷한 10세의 어린이들을 모집하여 1센트, 5센트, 10센트 25센트, 50센트의 다섯 종류의 동전을 보여주고 그것과 같은 크기의 원을 그리도록 주문을 하였다. 그 결과 빈곤가정의 어린이들은 모든 동전을 실제보다 크게 그린 것이다. 한편 유복한 가정의 어린이들은 빈곤가정의 어린이들이 그린 정도로는 원을 크게 그리지 않았다. 빈곤가정의 어린이들에게 동전이 크게 보인 것은 부유한 가정의 어린이들보다 빈곤한 가정의 어린이들이 돈에 대한 욕구가 더 강하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추측되어진다.

팔정도(八正道) 정견(正見)

위 실험의 결론은 “남의 떡보다 내가 먹고 싶은 떡은 더 크게 보인다.”이다.

상황의 유불리, 대상에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 혹은 고정관념 등이 대상을 판단하는데 방해와 착오를 불러오는 대표적인 것들로서 인간이 사물이나 대상을 접할 때 투영되는 것들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사물이나 대상을 대할 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다. 깨달음과 해탈로 이끄는 수행의 바른 여덟 가지, 팔정도(八正道)중에 그 첫 번째에 정견(正見)이 나오는 것도 아마 그 이유이지 않을까. 있는 그대로 바르게 보는 견해, 대상을 집착과 욕심 그리고 손해와 이익 내려놓고 바라볼 때 본래의 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법상 정사
연명의료 8

「연명의료결정법」의 현황 및 용어III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 등 요건을 갖춘 기관 중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여기에서 요건을 갖춘 기관은 첫째, 「지역보건법」 의거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말하는 지역보건의료기관, 둘째, 의료기관, 셋째,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의거 설립된 단체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사람은 직접 작성하여야 하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전에 등록기관으로부터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결정에 대한

사항(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호스피스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호스피스의 이용 의향의 여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및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등록·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변경·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작성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가 필요하며, 작성자가 법에 대한 설명을 이해하였다는 확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열람허용 여부, 등록기관 및 상담자에 관한 사항 등을 충분히 설명을 듣고 내용을 이해한 후에 작성하여야 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언제든지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하고자 할 경우 즉시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효력 상실요건을 보면 본인이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각 사항에 관한 설명이 제공되지 아니하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등록 후에 연명의료계획서가 다시 작성된 경우에는 다시 작성된 시점부터 효력을 잃게 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서식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등록·보관·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등록기관의 지정 취소 요건을 규정하여 엄격성을 더욱 강화하였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을 설립하여 등록기관을 지도 감독하게 하고, 등록된 사전의료의향서가 변경, 등록 철회 된 경우에도 그 결과를

통보하게 하고 있다. 이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대리 작성, 부적절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작성, 작성자의 자율성을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 등을 방지하고자 한 것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삶의 마지막 막을 아름답게 장식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며,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본인의 의사를 작성하여 등록기관을 찾아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직접 자필로 작성하여 등록기관에 등록해 두면 법적으로 효력을 볼 수 있다.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 두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이다.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맞이하는 죽음으로 하루하루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해 본다.

그때 그 시절

운천사(雲天寺)불단이설불사 총기10년(1981) 8월 27일

마산시 추산동 73의 25동 26번지 대지 103평에 지상목조가좌집 1동 건평 49평 3합 8작(勺)을 매수 수리하여 불단이설불사를 거행.

신규채용승승 시교(試敎) 제도 시행 총기16년(1987) 8월 23일

총기 16년 7월 30일자 임시조치법으로 마련한 인사처리내규에 의해 승승 후보 2인을 중앙교육원 교육과정 을 수료하고 최초로 시교발령함.

제1회 경로수련법회 총기17년(1988) 8월 23일

수련원 개원기념으로 학생수련법회에 이어 전국 65세 이상의 교도를 초청, 교구별로 2회로 나누어 2박 3일간 과산수련원 현지에서 경로수련법회를 개최.

수재 의연금 지출 총기20년(1991) 8월 3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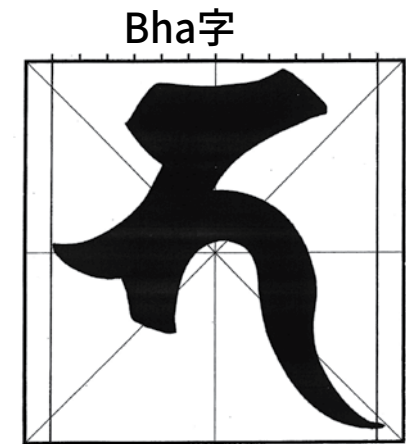
글래디스 태풍 (8월 22일 - 23일)의로 인하여 엄청난 재해를 입은 영남동해안 지역의 사원 교도가정 수재민에게 수재의연금을 지출함.



건화사 신축 완공시 사진

- 사원명:건화사(建和寺)
- 예전사원명: 안강선교부(安康宣敎部)
- 개설일자: 총기1년 12월 02일
- 건화사 개명일자: 총기4년 10월 29일
- 건화사 신축완공: 총기11년 11월

사진제공=재단사무국



범자 쓰는 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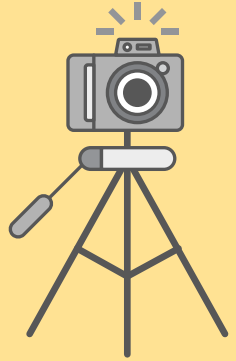


경전예문(신묘장구대다라니)



옴 짜르와-브하예수 (범음)
옴 살바 바예수 (한자음)

- 뜻 : 옴.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 옴 - 우주소리 / 살바 - 모든, 일체 / 바예수 - 두려움



사//원/탐/방

바른마음·바른삶을 실천하는, 정심사

주교 : 화령 정사
주소 : 서울시 중랑구 면목로 95길 26
전화 : 02-491-6888



▲ 사진 = ① 정심사 ② 정심사 내부 ③ 정심사 옛 모습 ④ 좌담하는 주교 화령 정사 ⑤ 정심사

여의주를 품고 웅비(雄飛)를 꿈꾸는 초미니 도량



▲ 정심사 약도

대일여래의 가지 신력이 현현할 응신서원당(應身誓願堂)

정심사는 서울 중랑구 상봉동 상봉역 앞에 자리 잡고 있다. 정심사는 총지종 창종주이신 원정 종조님께서 시대에 맞는 새로운 종단의 탄생을 꿈꾸며 잠시 철회하셨던 2층 양옥집으로, 원정 종조님께서 입적하신 후 보수공사를 하여 ‘응신서원당(應身誓願堂)’이라는 이름으로 포교를 시작했다. 비로자나 법신 부처님이 우리들의 가지(加持) 기도에 의하여 모습을 나타내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응신서원당(應身誓願堂)이라는 이름을 붙였으리라 생각한다. 이후에 정심사(正心寺)라는 사원명을 붙이고 여러 스승들이 이곳을 지키며 30년을 보냈다.

정심사의 과거와 오늘

옛날에는 상봉동이 교통도 불편하고 포교를 하

기에도 어정정한 곳이라 포교 거점으로서 크게 중시하지 않았던 듯하다. 더구나 40년 가까이 되는 옛날 구옥의 형태를 그대로 지니고 있어 정식 사원이라기보다 원정 종조님이 한 때 철회하셨다는 이유로 상징적인 의미만 이어오고 있었다.

현재 상봉동은 큰 건물들이 들어서 대형 쇼핑몰이 입주하며 상봉역은 서울의 동부 지역 교통 중심지가 되어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또한 종단의 중앙교육원장인 화령 정사가 전임인 진일심 전수를 이어 교육원장 소임과 함께 정심사 주교를 겸임하고 있다. 때문에 기존의 교도들 이외에도 많은 젊은 불자들이 수시로 찾아와 상담을 하기도 하고 법담을 나누기도 한다.

화령 정사는 정심사를 앞으로 활용하기에 따라 총지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중요한 거점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정심사를 생활과 밀접한 문화중심지로 삼아 총지종을 알리고 밀법 도량으로 거듭나기 위한 발판으로 삼기에 충분하며, 또한 정신적 방향을 겪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문화적인 충족과 함께 공동체 의식을 배양하는 장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상봉은 교통 편의성이 좋으며 도심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주택가를 끼고 있어 크게 소란스럽지 않다. 또한 넓은 터를 이용하여 소정원을 갖춘 도시인들의 휴식 공간 겸 문화 시설을 갖춘 새로운 패러다임의 현대식 사원의 전형을 시도해 보기에 아주 적절한 입지적 조건을 갖추었다.

지금은 교도수도 많지 않고 정기법회에 참석할 수 있는 인원도 많지 않지만, 수시로 상담을 요청해 오고 밀교에 관심을 보이는 잠재적 청년 교도들을 생각하면 이곳의 활용 여하에 따라 총지종의 비약을 다시 한 번 기억해 볼 수 있는 좋은 조건들을 갖추었다고 해석된다.

정심사

‘정심(正心)’은 언제나 바른 마음을 지니라는 의미인데 탐진치 삼독에 찌들어 바른 삶의 모습을 잃어버린 현대인들을 생각하면 지금의 시대야말로 ‘정심’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된다.

주교인 화령 정사는 ‘정심’의 의미를 이렇게 풀이했다. 정심은 올바른 마음을 말한다. 올바른 마음이란 탐진치에 찌들어 왜곡되지 않은 마음이다. 물욕이 치성현 물질위주의 현대에 사는 현대인들은 참된 자아를 잊어버리고 정심을 잃어버리고 주위에 현혹되어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 증거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부조리를 일삼는 사람들이 온갖 뉴스를 도배한다. 현대야말로 잃어버린 자아를 되찾고 정심을 지녀야 할 시대이다.

또 정심은 탐진치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바른 길을 가는 것을 말한다. 불자가 정심을 지닌다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을 등불로 삼고 어두운 사바세계의 파도를 헤쳐 나가는 것이기도 하다. 시대에 따라 달라지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짓 종교, 위선의 가르침이 아니라 언제 어느 곳에서나 항상 바른 부처님의 말씀을 길잡이로 삼아 마음을 바로 세우는 것, 이것이 정심이다. 미신과 맹신이 아니라 정심(正信)을 지니는 것, 이것이 정심이다. 그런 뜻에서 정심사야말로 바른 마음을 세우고 참된 자아를 찾아가는 밀법도량이 아닐 수 없다.

정심사 이야기

특별 회향 법회에 참석한 교도들의 면면을 살펴보니 모두들 공력이 대단하게 느껴진다. 일사분란하고 질서정연한 법회 진행에서 작은 절이지만 구

성원들의 깊은 신심과 단합하는 마음이 보인다. 향을 올리는 자세에서부터 어느 총지종 사원들과는 다르게 차렷 자세로 눈썹 위까지 향을 올리고 서원을 하는데 엄숙하고 장엄하기 이를 데 없다. 옴마니반메흠 염송도 특유의 리듬에 맞추어 큰 소리로 외치는데 몰두하다 보면 염송시간이 너무도 짧게 느껴진다. 특별한 운율에 맞추어 염송하는 모습은 정심사의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의 하나이다.

정심사의 교도들은 아주 먼 곳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화령 정사는 먼 곳의 절에 왔다 가는 것만 해도 큰 공덕이 있다며, 절에 오겠다고 마음을 내는 그 순간 이미 공덕의 절반은 얻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하였다. 대부분의 교도들이 차로 거의 2시간 남짓 하는 곳에서 다니지만 불평은커녕 오히려 먼 거리를 즐거움으로 알고 나온다고 했다. 정심사의 교도들은 젊은 청년에서부터 30대, 40대, 50대의 골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물론 주축이 되는 분들은 노력이 많지만 아름다운 화합으로 신구의 조화를 잘 이루어내고 있다.

앞으로 상봉동이 더 발전함에 따라 종단에서도 정심사를 포교의 전략적 거점으로 생각하여 획기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한다면 정심사는 한국 불교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종단의 첫 번째의 희망 등대가 될 수 있다. 그야말로 용이 여의주를 물고 비상(潛龍飛翔)의 터로서 아무쪼록 이곳이 허망한 생각으로 용도가 전용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화령 정사는 말했다. 대일여래의 응신이 현현할 수 있는 곳 정심사! 법신 비로자나부처님의 가지 신력이 이곳에 머물러 응신을 현현하시고 총지종 포교의 중심지로서 거듭 날 수 있는 그날이 하루 빨리 도래하기를 기약해 본다.

취재=박설라

지상 설법

나를 버려 나를 찾는다

정심사 주교 화령 정사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딜 가든 본인이 주인이 되고, 자신에게 나타나는 모든 것이 진리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밀교와도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는 늘 자성불에 의지하며 진리의 세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이 곧 진리라는 의미입니다. 당상즉도(當相卽道)가 바로 이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참 좋아졌습니다. 분명 기본적인 생활이 다 편리해졌는데, 왜 예전보다 더 살기 어려울까요? 왜 아무리 가져도 우리는 행복할 수 없는 세상에 살게 되었을까요? 바로 스스로의 주인의식이 결핍되어 타인과 비교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가져도 욕심은 커지기만 하고 만족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

런 사람은 타인과 집 크기를 비교하고, 연봉을 비교하고 외모를 비교하겠죠. 비교하는 마음가짐으로는 무엇을 가져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사실 행복은 양적인 것과 크게 연관이 없습니다. 지하철을 타는 다른 사람은 계단을 오를 수 있는 두 다리가 튼튼한 것에 감사하며 행복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자전거가 아닌 지하철로 출퇴근함에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왜 같은 상황에서 누군가는 행복하고 누군가는 불행한 것일까요? 바로 주인의식의 차이 때문입니다. 타인과 비교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고, 누구와도 비교당하지 않는 단단한 자아를 가져야 합니다. 사회적 기준, 타인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기준을 만들어 주체적인 자세를 지니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복은 결국 욕망의 충족인데, 그 욕

망을 결정하는 것은 스스로임을 잊어선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세계를 살아갑니다. 타인이 나의 세계를 존중하길 바란다면 나부터 먼저 타인의 세계를 존중해야 합니다.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사실 남 때문에 화가 난다고 생각하지만 화가 나는 것은 결국 나의 일입니다. 그러니 모든 문제가 나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등산을 하여 정상에 올랐을 때, ‘경치 좋다. 기분 좋다’ 그런 말을 합니다. 산이 좋다고 하는 것은 내 자신입니다. 내가 산이 좋다고 하면, 산이 기분 좋아합니까? 경치가 좋다고 하여 경치가 기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좋은 거죠. 산은 그냥 산일뿐입니다. 산은 내가 어떻게 고생해서 정상에 올랐는지, 정상에 올라 마시는 시원한 얼음물이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본인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이 좋고, 경치가 좋으며, ‘내’가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타인을 위한 것인지 자신을 위한 것인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타인을 위한 행동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상 돌이켜보면 자신을 위한 행동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남에게 무엇을 바라고, 기대하고, 실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늘 행복하지 못합니다. 집착하고 비교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지 못해 늘 불만을 가지고 삽니다.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비우고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남이 해주는 선의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기

대하는 마음과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타인을 볼 때, 산을 보는 마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자신조차 자신의 마음대로 하기 힘든 세상입니다. 남이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길 바라는 마음을 비울 때 우리는 비로소 괴로운 인간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주위에 휘둘리지 않는 진정한 자신을 찾아야 합니다. 본인이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한지 고민해야 합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을 지니며 스스로를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집착하고 욕심내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아를 실현할 수 있고 행복해 질 수 있습니다. 집착을 버리고 참된 나를 찾아 모두가 더불어 행복해 질 수 있기를 서원합니다. 성도합니다.



정각사 김유원 교도

큰 언니 따라 입교한지 35년이 됐습니다. 처음부터 의심이나 의문 같은 게 없었습니다. 다른 보살님들 하는 거 보고 흥내만 냈습니다. 뭣도 모르고 염주를 돌리면 좋다고 하니까 많이 돌리고 싶어서 그저 빨리 염주를 돌리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정사님께서 저를 보고 염주를 좀 천천히 돌려보세요,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 천천히 돌려야 하는구나 싶어서 천천히 돌렸는데, 전수님은 굉장히 빨리 돌리시는거예요. 정말 꾸준히 했어요. 그때 아이가 셋이었는데, 그 애들을 데리고 늘 왔습니다. 대중불공 시간에 늦을 거 같으면 택시라도 뒀습니다. 늦으면 안 될 거 같은 거예요. 그렇게 처음엔 그저 서원당에 오고 염주를 돌리는 것, 그걸로 부처님과 인연의 시작을 만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올해로 수술한지 10년이 됐습니다. 20년 전부터 조금씩 아팠는데, 아무에게도 말을 못 했습니다. 또 절에 다니면서

도 병을 낫게 해달란 소원도 못 빌었습니다. 그냥 모든 것을 부처님 뜻에 맡긴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견디다 못해서 병원에 가니까 갑상선에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약을 6개월은 먹어야 조금씩 좋아진다고 했습니다. 저는 불공을 열심히 드리면서 약물요법을 같이 사용하였고, 딱 일주일 먹으니까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곧 갑상선 때문에 심장이 안 좋아 졌습니다. 절에 그렇게 다니면서 몸이 아프냐고 흥을 볼까봐 1년을 꼭 참았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권유에 결국 병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선 괜찮다며, 치료하면 나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염주를 들고염송을 했습니다.

어느 날 불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갑자기 지장보살, 지장보살하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날은 지장보살 하며 아주 천천히 염주를 돌렸습니다. 어느 날은 나무삐다

남하며 존재진언이 터져 나오고 또 어느 날은 광명진언이 줄줄줄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행동들이 어떤 의미인지 몰라 조금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 전수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스승님께서는 “진언이 터져 나올 때, 혹은 다 울고 난 후 부정적인 감정이 들지 않는다면 괜찮습니다. 불공을 하며 터져 나온 진언을 읊어도 좋습니다”라고 말씀하셔서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새벽 2시에 누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현관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치 부처님이 불공할 시간을 알려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새벽 2시에 일어나 불공을 했습니다. 집에서 새벽에 불공을 하니까 조용히 해야 할 것이 마땅한데, 자꾸 큰 소리를 내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목이 터져라 외치면서 불공을 했습

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이, 그때 제가 팔아이와 함께 방을 쓰고 있었는데, 제가 고탐를 지르면서 옴마니반메움을 외치는데도 팔아이는 꿈작도 않고 잠을 잘자는 겁니다. 평소 아주 예민하여 잠귀가 밝은데도 말입니다. 불공을 두어시간 하는 동안 머리에서 물이 푹푹 떨어질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새벽 2시만 되면 일어나서 불공을 했습니다. 나 살릴려고 부처님이 새벽 2시마다 깨워주시는 거 같았습니다. 꼭 그렇게 3개월을 채웠습니다.

하루는 집에서 불공을 하다 잠깐 졸았는데, 아이가 잠깐 놀라면서 저를 급하게 깨웠습니다. 엄마 입이 이상하다면서, 입이 돌아갔다면서, 저도 순간 놀라긴 하였지만 아침이 되면 괜찮을 거란 믿음이 있어 아이를 안심시켰습니다. 원래 심장이 안 좋으면 입이 순간적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었습니다. 아침이 되니까 진짜 괜찮아졌습니다. 하지만 불안해하는 가족을 위해 한 번

더 그런 일이 있으면 병원에 가보고, 약으로 치료할 수 없으면 수술을 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결국 목이 계속 나아지지 않아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선 승모판막에 문제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전혀 불안하지 않았습니 다. 다만, 부처님만 믿겠습니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병원에선 수술만 하면 낫는다고 하였고, 저는 서울 삼성 병원으로 갔습니다. 부처님의 공덕인지 마침 병실이 바로 생겨 검사를 하고, 2주를 치료 후 수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임원실 옆 침대에 연세가 지긋하신 할머니가 계셨는데 거동이 불편하셔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할머니께서 사람이 필요한 경우 호출벨만 누르면 간호사분이 오시는데, 할머니는 그게 미안하셔서 간호사를 부르지 않았

습니다. 그래서 딸과 제가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할머니를 도왔습니다. 저는 간호사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빨리 기력을 찾기 위해 산책을 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한 결과, 결국 선생님들의 예상보다 더 빨리 건강하게 되원했습니다.

부처님 덕에 한 번 더 살았는데, 그저 가만히 누워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간호사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빨리 기력을 찾기 위해 산책을 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한 결과, 결국 선생님들의 예상보다 더 빨리 건강하게 되원했습니다.

그때의 일들이 참으로 꿈만 같습니다. 나 잘랐다는 오만은 없습니다. 늘 부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뿐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리라이팅=박설라



벽룡사 양재범 교도

‘3기이지만 거의 말기에 가깝습니다. 잘 견디면 일 년은 살 것이고, 운이 좋지 않으면 반년도 힘들 수 있습니다.’

암을 진단하는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픈 것이나 힘든 것을 터내지 않았던 아내의 인내심에 처음으로 화가 치솟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웠으면서 왜 이제야 병원에 올 생각을 했는지 속에서 천불이 났습니다. 옴마니반메움을 외우며 서둘러서 입원 병실을 알아보고, 의사가 하는 당부와 조언을 하나하나 수첩에 옮겨 적었습니다. 믿을 것은 부처님과 의사뿐이었습니다. 의사가 시키는 것을 무조건 따라서 아내의 건강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입원을 한지 이틀날 밤에 아내의 혈압이 40까지 떨어졌습니다. 달려온 당직의사가 말하길, 치료가 불가능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어떻게든 살려달라고 비는 일 밖에 없었습니다. 의사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몹시 망설여진다고 했습니다. 혈관에 주사를 꼽아서 수혈을 하면 환자

가 못 견딜 게 분명하므로, 어깨에 구멍을 뚫어서 피를 솟아 붓듯 넣어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후자의 경우, 심장에 무리가 가서 잘못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죽게 되는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깨에 구멍을 뚫어서 피를 넣는 것이라도 제발 하게 해주세요.’

저는 염주를 든 채 애걸했고 탈진한 아내 곁에서, 일이 잘못되더라도 병원 측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습니다. 서명을 하는 손이 바들바들 떨렸지만 옴마니반메움을 외우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새벽 내내 어깨를 통한 수혈이 계속되었습니다. 모두들 그 밤이 고비일 거라고 말했고, 아내의 곁을 떠나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피곤하고 지친 심신을 억지로 깨우기 위해 커피만 하염없이 마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옴마니반메움 진언 외우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밤은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모 든 것이 부처님 은덕이라고 생각하며 감사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밤 열시만 지나면 난리가 났습니다. 밤마다 집사람이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고통을 호소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자기 머리채를 마구 잡아당기고, 목을 누르다면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내는 귀신들이 나를 죽이려한다며 무섭다고 고래고래 소리질러 대는 통에 혼이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옴후야호사가 퍼뜩 생각났습니다. 진언의 힘이 세서 귀신을 물리치는데 효과적이라는 걸 아주 오래 전 흘려가는 말로 들은 기억이 났습니다. “옴후야호사!”

외치는 순간, 머리카락 끝이 쭈뼛쭈뼛 서면서 진언을 더 이상 못 외우게 하려는 것처럼 입이 저절로 막혔습니다. 눈도 침침해졌습니다. 염주를 돌리면서 옴후야호사를 반복하자 신기한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팔다리에 돌았던 소름도 가라앉고, 마음도 조금씩 진정되었습니다. 시야도 밝아졌습니다. 새벽 네 시 즈음,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데 자고 있는 줄

알았던 아내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아내는 살려달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반 벌거숭이로 삼푸 거품을 푹푹 흘려가면서 밖에 나와서 염주를 돌리며 옴후야호사를 외쳤습니다. 아내도 저를 따라 함께 진언을 외웠습니다. 그제야 아내는 겨우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날이 밝았습니다. 일단은 아내를 보다 안정적인 곳으로 옮기고 싶었습니다. 병실을 옮기고 싶다고 하여 이인실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인실 보다는 시달림의 정도가 나았지만 그래도 아예 힘이 들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목이 약하다 보니 피를 순환시키는 힘이 부족해서 혈액순환이 전혀 되지 않을었습니다. 회진 때마다 의사는 오늘이 고비일 수도 있다, 힘들 수도 있다. 라고 했지만 죽자 살자 옴마니반메움과 옴후야호사에 매달린 덕인지 하루하루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고통스러워 할 때마다 마음을 다해 진언을 외우고 염주를 돌렸습니다. 그렇게 병원 생활한 어느 날, 처음에 아내의 어깨에 구멍을 뚫던 의사를 우연히 만났는데 저희 부부 내외가 아직

도 병원에 있는 것을 보며 적잖이 놀란 눈이었습니다. 나중에서야 들은 말이지만, 의사를 상식으로는 아내의 상태로 미루어 짐작했을 때 1년도 채 버티지 못할 게 틀림없었는데 4년 이상을 버티고 7년을 채우고 있으니 놀랄 만도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암은 만만한 녀석이 아니었습니다. 긴 시간의 병원생활로 지친 아내는 통증을 이기지 못할 때가 많았고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의사들도 이미 아내에게 다가를 끝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꼬챙이처럼 마르고 수척해진 몸임에도 온 병원이 울릴 만큼 커다란 목청으로 고탐치듯 의사를 불러서 진통제를 놓아달라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만큼 아내의 고통은 심각했습니다. 암세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아내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독한 진통제를 맞고 나서 모처럼 곤히 잠에 든 다음, 잠을 자는 것처럼 가만히 세상을 뺐습니다. 아내를 보내기 얼마 전 꿈을 꾸었습니다.

다. 여러 사람이 택시를 타고 어디론가 가는 꿈이었습니다. 택시에는 아내도 있었고, 오래 전 세상을 뜬 조상님들도 몇몇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아내의 숨이 끊어졌으니, 조상님들이 아내를 데리고 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옴후야호사라는 진언과 옴마니반메움을 외우는 불공이 아니었다면 아내는 결코 기운을 낼 수 없었을 테고, 제 곁에 그토록 오래 머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불공의 힘으로 저희 부부는 투병생활을 그나마 수월하게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의학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많은 질병들이 존재합니다. 치료법을 찾지 못한 병도 많습니다. 혹시, 어떤 질병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보살님이 계시다면, 옴후야호사와 옴마니반메움에 보다 더 의지를 해서 힘을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저와 저의 아내가 그러했듯이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리라이팅=황보정미

개천사교도

버섯요리 전문점

버섯마을



M E N U

버섯생불고기
버섯전골
버섯낙지전골
버섯냉면

☎ | 053)422-9965

대구시 중구 동인동 3가 348-2

버섯마을

버섯요리 전문점 T.422-9965 동인점

어서오십시오

버섯마을

422-9965 동인점

※ 첫째, 넷째 일요일 휴무



법경 정사
(밀교연구소장/법천사 주교/ 철학박사)

밀교연재

법경 정사가 전하는 『밀교문화와 생활』 (19)

연기(緣起)의 이해와 수행

일체는 연기(緣起)로서 존재한다

우주 삼라만상의 존재를 불교에서는 연기(緣起)로 설명하고 있다. 일체 존재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인(因)과 연(緣)이 화합(和合)하여 일어난다[生起]는 것이다. 이 인연화합(因緣和合)의 생기(生起)를 줄여 연기(緣起)라고 한다. 연(緣)하여 일어난다[起]는 의미다.

어떻게 연기하는가? 불교에서는 이를 여러 가지 교설로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가 업감연기(業感緣起)다.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들은 모두 중생의 업인(業因)에 의해서 생긴다는 세계관이자 인간관이다. 즉 중생과 세계는 중생들 제각기의 업력에 따라서 그 과보로써 생긴다는 것이다. 우리들은 각기 뜻을 결정하고, 그 결정을 행동으로 나타내게 되는데, 신구의(身口意)라는 삼업의 활동과 그 업력에 의해서 모든 결과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즉 업의 결과로써 이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생과 세계는 천차만별인 것이다. 지은 업(業)의 차이 때문이다.

업감연가-업의 의해 과보가 생긴다

아뢰야연가-업식(業識)에 의해 과보가 생긴다

그렇다면, 업의 결과가 일어날 때까지 그 업력은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 그에 대한 설명이 바로 유식사상(唯識思想)에서 말하는 아뢰야식 연기다. 유식은 ‘오로지 식

(識)만이 존재한다’는 사상으로 업력에 의해 과보가 있게 되는데, 그 업력이 아뢰야식에 존재해 있다가 과보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뢰야식을 업(業)의 종자식(種子識)이라 한다. 우리가 육도 윤회하는 바탕이 바로 이 아뢰야식의 존재에 기인하고 있다. 육신(肉身)은 사라져도 식(識)이 남기 때문이다. 이를 영식(靈識)이라 한다. 우리가 영식 불공을 하는 이유이자 근거다.

아뢰야식으로 남게 되는 것은 무명(無明)때문이다. 무명이란 지혜가 없음을 말한다.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이를 망식(妄識)이라 한다. 부처님께서 아시는 것은 지(智)라고 하고 중생이 아는 것을 식(識)이라 한다. 그래서 유식에서는 중생이 망식(妄識)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를 청정한 식(識)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를 전식득지(轉識得智)라 한다. 수행을 통해서 바꿀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배우고 닦고 실천해야 하는 이유다.

진여연가-본래부터 갖추어진 불성이 일체를 이룬다 법계연가-삼라만상이 서로 무진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원래부터 중생은 청정하다는 사상이 있다. 여래장사상이다.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佛性)을 지니고 있다는 사상이다. 그 불성을 진여(眞如)라고도 한다. 중생의 본체(本體)가 진여(眞如)이며 이 진여가 연(緣)에 따라서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를 진여

연기(眞如緣起)라 한다.

본래부터 불성이 갖추어져 있다면 그것은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을 화엄(華嚴)의 법계연기(法界緣起)로 설명할 수 있다. 법계의 삼라만상이 천차만별하나 피차가 서로 인과관계를 지니고 있어서 어느 것 하나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상이다. 그래서 만유(萬有)를 모두 동일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모두 상의상관(相依相關性)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세상이 인드라망과 같이 중중제망(重重帝網), 중중무진(重重無盡)으로 연기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주의 만물은 각기 하나와 일체가 서로 연유하여 있는 관계이므로 이를 법계무진연기(法界無盡緣起)라 한다. 우주 삼라만상의 법계가 무진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밀교의 육대연가-육대가 삼라만상의 체(體)를 이룬다

이러한 연기는 밀교에 와서 육대연기(六大緣起)로 설명된다. 지 · 수 · 화 · 풍 · 공 · 식의 여섯 가지 요소가 법계를 이루며 그 여섯이 연(緣)하여서 일체를 이룬다는 것이다. 이 육대를 체(體)로 하여 삼라만상이 있게 되는 것이다. 이를 교리적으로 형상화한 것이 밀교의 ‘만다라’이다. 만다라 속의 수많은 불보살이 서로 상의상관적 인과관계에 있으며, 하나 속에 일체가 있고 일체는 곧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비유하자면 비로자나불이 아축불 · 보생불 · 아미타불 · 불공성취불로 나누어지고, 이것이 하나를 이루면 대비로자나불이 되는 것이다. 화엄의 일즉다(一即多) 다즉일(多即一)이 밀교적 모습으로 계승된 것이다.

만다라는 모든 중생이 다양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모두가 연기해 있음을 일깨워주고 있다. 나와 너는 적대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존과 불이(不二)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다. 둘이 하나요 하나 속에 둘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만다라관(曼荼羅觀)을 통해 자비심을 기른다

염송하는 가운데 본존 좌우의 만다라를 응시해보라. 만다라 전체를 보거나 한 분 한 분의 불보살을 자세히 들여다 보라. 서로 연결되어 있는 불보살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만다라를 응시하는 것이 곧 만다라관(曼荼羅觀)이다. 그 속에 불보살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고 저 사람이 있으며, 우리 모두가 들어 있다.

따라서 너와 나를 분별하지 말고 배척하거나 증오할 필요가 없다. 남을 배척하거나 증오하는 것은 곧 자신을 배척하고 증오하는 것과 같다. 만다라를 통해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길러보자. 이것이 진정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설하신 연기의 가르침이다. 모든 사람을 보듬을 수 있는 진언행자가 되자.

정성준 교수의 후기밀교

전행(前行)과 4가행



정성준 교수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전임연구원

상좌부불교와 대승불교의 차이는 대승불교의 경우 열반법신을 얻은 후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수용신과 화신을 보이는 점이다. 대승불교는 반야사상의 발전으로 인해 생사번뇌의 속제도 열반과 다르지 않다고 해석한다. 대승불교의 궁극적 열반은 차도와 괴토를 가리지 않는다. 마명의 『대승기신론』에서는 유식사상에 근거해 삶의 현상과 본성을 심생멸문과 심진여문으로 구분하였다. 밀교에서는 나아가 삶의 현상 그대로를 진리의 세계로 본다. 무분별지의 실현에 대해 『대승기신론』은 대승에 대한 발심을 목적으로

로 삼기 때문에 마음을 중심으로 범부에게 법을 이해할 잣대를 준 것이다. 밀교는 대승의 교학을 계승한다. 그러나 밀교의 교학은 대승교학의 궁극으로 미세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범부의 육신과 삶을 짚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무분별지를 체득한 아사리의 내면은 붓다의 몸이자 열반보토의 현실에 있다. 밀교 최후의 수행인 무상유가판뜨라는 생기차제와 구경차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생소하지만 그것은 정각자의 삶과 본성을 다루는 것을 지나치지 않는다.

후기밀교의 수행은 관정을 통해 본

존불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다. 사바세계의 수행자와 본존의 수용신이 만나는 인연은 매우 지중한 것이기에 후기밀교의 수행은 제자로 하여금 양차제의 본체에 들기 전 전행으로 알려진 특별한 다짐의 수행을 요구한다.

인도원전에 기술된 전행의 내용은 현재 티벳불교에서 전승되는 4가행과 큰 차이가 없다. 금강살타진언 독송 10만회, 만다라공양의례 10만회, 구루공양 10만회, 오체투지 10만회는 대부분의 후기밀교 수행에서 요구하는 전행의 내용이다. 금강살타진언은 수행자 자신이 금강살타본존임을 자각하는

것으로 유가판뜨라의 범주에서 마음으로 오선정불의 오지(五智)를 현증하는 오상성신관에 입각한 수행이다. 만다라공양의례는 삼천대천세계를 열반법계로 인식하는 것이다.

우주 만다라를 상징하는 범구를 이용해 삼계와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중생이 열반락을 수용하도록 기원하는 것이다. 동시에 삶의 현상계를 진리로 인식해 생사열반의 분별을 벗어나는 자각이기도 하다. 금강살타진언과 만다라공양은 자아와 외경을 다루되 마음으로부터 현상의 실상으로 나아가는 훈련이기도 하다.

다음 양차제로 나아가기 위해 스승인 아사리에게 다짐과 헌신하는 구루공양의 진언을 10만회 독송한다. 스승에 대한 의심을 벗고 몸과 마음을 다하는 다짐은 밀교수행에 있어 특히 중요하다. 과거 나로빠가 털로빠를 처음 만났을 때 털로빠는 나로빠를 버랑끝으로 데리고 가다짜고짜 뛰어내리라고 하였다. 진리를 구하는 헌신과 각오가 없으면 누구나 도중하차하게 마련이다.

마지막으로 오체투지 10만회는 육체를 조복하고 수행을 하기 위한 체력의 기초를 다지는 것이다. 이상의 4가행은 하나하나가 깊은 의미를 담은 것이어서 중요하며 진언 하나마다 정성을 다해야 한다. 때문에 4가행을 모두 마치려면 일상생활을 소화하면서 하다보면 최소 일 년 반에서 2년 가까운 시간이 걸리게 마련이다.

인도에서 까규의 아사리를 모시고 후기밀교 본존수행에 들기 위해 필자도 4가행을 한 적이 있었다. 티벳 본토에서 까규의 전승을 계승한 아사리 독텐 암틴은 유명하지만 소탈한 스승이었다. 4가행 가운데 오체투지의 경우 전신을 던지기 쉽도록 착췌판(착췌은 티벳어로 귀의라는 뜻이다)에 의지한다. 당시 수행에 참여한 한국 불자들의 신심과 구도열은 상당한 것이어서 일 년 이상 걸리는 전행을 석달만에 모두 끝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한국불자라면 누구나 다르지 않았으며 티벳인들조차도 한국불자의 구도열에 혀를 내둘렀다. 출가와 재가를 가리지 않



고 밤새도록 철썩철썩 오체투지에 전념하는 한국불자들을 보며 진가의 평가를 떠나 한국인들이 지닌 범상치 않은 종교열에 전율을 느낀 경향이 있다. 인도의 시성 타고르가 한국인을 종교적 영성이 높은 민족으로 지목한 이유가 이런 이유에서 증명되는 것 아닌가 생각해본다.

깨끗한 생활 레시피

Dr.Puri 닥터퓨리

닥터퓨리로 깨끗하게 숨쉬세요!

닥터퓨리 KF80 미세먼지 황사마스크

닥터퓨리 KF94 쿠션필터 미세먼지 황사마스크

닥터퓨리 KF94 미세먼지 황사마스크 NEW

닥터퓨리 소프트터치 건강 마스크

drpuri.co.kr

(주)케이엠

청정용품, 안전용품 1등 쇼핑몰 cleanqplus.com

깨끗한 레시피, 닥터퓨리 drpuri.co.kr

456-843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협동단지길 147 (구 보채리 348-1번지)
TEL:031-678-8763 FAX:031-678-8888, MOBILE:010-9740-1218
E-mail:jungsh@kmbiz.com

법천사 교도

경조화환 꽃바구니, 전국꽃배달 서비스
크린큐플러스

꽃배달 서비스



cleanqplus.com | 1661-2662



아낌없이 주는 거목

원봉님이 입적하셨다. 이 날은 하늘에 별이 뜬 밤이었던 것 같았다. 나는 심장이 뛰고 온몸이 후들후들 떨려서 장례식장까지 못 갔다. 정신이 없었다. 자식들한테 다녀오라고 하고 나는 알아누웠다.

원봉정사님은 나한테는 마을 어귀에 큰 나무 같으신 분이네.

바람 한 점 없는 무더운 여름날, 언제든지 누구든지 와서 흐르는 땀방울을 식혀가더라도 편안함을 주는 나무.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에 비 피해 갈수 있도록 양팔 벌려 환영하듯 가지 많고 잎이 무성한 나무.

바람이 불면 아름답리 큰 나무 뒤에 몸을 숨겨 바람도 막아주는 나무.

원봉님은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큰 나무 같은 그런 든든한 분이셨다.

내가 자식들 데리고 힘들게 살 때, 부모님같이 나와 내 자식들을 돌봐주셨다. 집에 못 갈 때도 전수님과 함께 우리 집에 찾아 오셔서 가정 불공도 해주시고, 쌀 떨어지면 쌀도 보내주셨다. 태풍에 물난리가 나서 집이 잠겨 오갈 데 없는 우리를 위해 사택 방을 내 주시

도 했다. 집에 물이 다 빠질 때까지 절에서 지내면서 참 고마웠다. 대가도 바라지 않으시고 도움을 주시는 정사님은 우리한테는 넓은 가지를 가진 나무와 같으셨다.

그래서 나와 내 자식들은 원봉님과 전수님한테 많은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힘들게 살 때, 아무도 나한테 손 내밀지 않았는데 정사님은 전수님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살펴 봐 주셨다. 내 자식들 취직할 때도 도움을 주셨고, 애들 학비며 사소하게 들어가는 돈을 못 구해 쪼들 땔 때도 정사님은 도움을 주셨다. 자식들한테 들어가는 돈은 무조건 빌려 주셨던 것 같다. 때를 놓치면 배움을 놓칠까봐 걱정해주셨다. 그 덕으로 애들 다 번듯하게 자라 제 몫의 삶을 잘 살고 있다. 남편이 빚만 남기고 병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도 성심성의껏 도와주시고 장례식 내내 불공을 해 주셨다. 덕분에 49제도 여범하게 잘 마쳤다. 사춘기를 겪는 어린 자식들도 잘 붙잡아 주시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 정사님 고마운 거는 말로 다 할 수 없다. 고마운 거 아는 자식들은 종종 용돈도 드리는 것 같고 안부 전화도 하는 것 같은데 이

렇게 갑자기 열반하셔서 많이 슬프다. 지난 번, 서울에 오셨을 때 잠시 뵈는 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그때 귀가 잘 안 들리셔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하였지만 오랜만에 친정 오라버니를 만난 듯이 기뻐했는데 다시 못 뵈겠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다. 원봉님은 나를 허튼 생각 안하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이시다. 어려웠을 때 도와주고 격려해 주시지 않았다면 나와 내 자식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지 생각하면 아득하다. 늘 우리를 위해서 불공해 주시고 늘 걱정해 주셨던 원봉님 감사합니다. 당산나무 같은 정사님 덕분에 우리도 잘 살았습니다. 서러운 세상 풍파에도 나무 같은 정사님 덕에 잘 견뎌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생 성불하십시오.



수인사 고도 반아정



소통하는 통신원,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통신원

서울경인교구 호국안민기원 대법회



※ 하반기 49일 불공 회향 다음날(7월 16일)
호국안민기원 대법회 봉행 ※

서울경인교구 각 사원에서 호국안민기원 대법회를 봉행했다. 본산 총지사는 춘천 고구마섬, 실지사는 충북 보은 속리산 법주사 인근, 밀인사는 강원도 강릉 주문진 아들바위에 다녀왔다.

총기 47년, 전국불교합창단연합회 임원연수

서울경인·부산경남 합창단, 연합회 연수에서 뜻깊은 자리



총기총 서울경인·부산경남 합창단은 충남 공주에 있는 한국문화연수원에서 6월 27부터 28일까지 1박2일 동안 전국불교합창단연합회 임원연수에 참

가했다. 서울경인 마니합창단 최영아 단장과 부산경남 만다라합창단 이상록 단장, 최정숙 총무, 최영례 재무가 연수에 참

석했다.

연수는 마곡사 주지 원경스님의 강의를 시작으로 템플스테이 전담강사 김경녀 강사의 행복·웃음·치유명상 강의와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총장·삼촌종 총무원장 지민스님이 강의했다. 강의 중간에는 연수 참가자들과 함께하는 요가 수업과 소통의 시간, 신유식과 함께하는 소프라노 색소폰연주가 있었다.

부산경남 만다라합창단 이상록 단장은 “이번 전국불교합창단 임원연수를 하면서 다른 합창단을 통해 배울점도 많았고 1박 2일동안 즐겁고 재밌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소감을 전했다.

정각사=통신원



어울림 소식

- 8월 11일 12시. 수인사. 원봉대정사 열반 49재 봉행.
- 8월 20일. 지인사. 을해 이석주 영가(임재연 보살의 부군)의 49재 봉행 예정.
- 9월 7일 정각사. 계유 박영순(최영혜 보살 모친) 49재 봉행 예정

총지스케치



김홍균 작가

묻고 답하기

Q 총지종 서원당에는 왜 불상이 없나요? 육자진언 본존이 불상인가요?

종조님께서는 전통 불교와의 다른 점을 강조하면서 불상과 큰절, 공양물 등을 간소화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불교를 창종하였습니다. 총지종은 새 시대에 맞는 새 불교를 포교방법으로 선택하였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불상은 부처님을 대신하는 형상입니다. 꼭 사람형상을 하고 있어야만 불상이라 하지 않습니다. 불상(佛像)은 나무, 돌, 쇠, 흙 등으로 부처의 형상을 표현한 조각이나 화상을 말합니다.

종교적인 면에서는 불교 신자들은 석존이 생존해 있을 때 불상을 만들었다는 전설을 믿고 싶어합니다. 실제로 석존이 기원전 483년에 열반에 든 후

로 약 200년간은 불교를 상징하는 형태로 석가의 유골을 모신 탑(스투파), 모라족이 석존의 화장터에 남아있는 재를 가져가 유골 대신 넣은 재탑(灰塔), 석존의 그림자나 발바닥 모양인 불족이 숭배의 대상이었고 불교를 상징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이때도 인간 형태의 불상은 나타나지 않았죠.

우리가 현재 보는 인간형 불상이 처음 만들어진 곳은 인도 서북부 간다라 지방으로 그리스 신상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과 인도 미술의 전통을 계승한 북부 미투라 지방에서 조성된 불상이 있습니다. 불상 조성 시기를 불멸 후 500년이 지난 기원전 후 무렵으로 추정하지만 알 수는 없고 서기 1세기 쿠산왕조가 성립된 이후부터 불상이 만들어진 것으로 학자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생각하는 마음에

서, 예배의 대상으로 꼭 인간형 불상만 부처님을 대신해왔던 것은 아니었음을 역사적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불상(佛像)은 부처님의 형상을 눈앞에 생생한 모습으로 모신 채 예배드리고 싶다는 민중적 욕구가 반영된 모습인 것이죠.

총지종 서원당에는 인간형 불상은 없지만 관세음보살님의 육자진언 “옴 마니 반메훔”을 본존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불상이라는 형상에 그 어떤 신비적인 힘이 있어 거기에 의지하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한다면 육자진언 “옴 마니 반메훔” 본존이 곧 불상임을 알 수 있겠지요. 깊고 깊은 수행자가 되시길 서원합니다.

법일정사

총지종 호신다라니 용품



호신다라니(장엄형)금색
길이 30cm
₩ 50,000



호신다라니(장엄형)은색
길이 30cm
₩ 50,000



호신다라니(장엄형)엔틱
길이 30cm
₩ 50,000



호신다라니(차량형)금색
길이 18cm
₩ 20,000



호신다라니(차량형)은색
길이 18cm
₩ 20,000



호신다라니(차량형)엔틱
길이 18cm
₩ 20,000



불교총지종 통리원 구입 문의 : 통리원 (02-552-1080) 또는 각 사원

※ 기타 총지종 불교용품은 총지종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절 기 이 야 기



연일 30도를 훌쩍 넘는 무더위가 계속되고, 아직 한여름이라고 할 수 있지만 8월 7일은 여름이 끝나고 가을로 접어들었다는 뜻의 입추이다. 입추는 태양의 황도상의 위치로 정한 24절기 중 열세 번째 절기이다. 양력으로는 8월 7일에서 8일 무렵이고, 음력으로는 7월 인데, 태양의 황경이 135도에 있을 때이다. 대서와 처서의 사이에 들어 있으며, 여름이 지나고 가을에 접어들음을 알리는 절후이다. 이날부터 입동 전까지를 가을이라고 한다.

입추는 예로부터 벼가 한창 익어갈 시기로, 1년 농사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였다. 비가 내리지 않아야 풍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비 내리는 것을 가장 큰 재앙이라고 여겼다. 만약 비가 5일 이상 계속될 경우 각 고을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고 맑은 날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뜻으로 기우제와 반대 개념인 ‘기청제’를 지냈다.

입추

삼일사 주교 남혜 정사

조선시대의 기청제는 주로 송례문·흥인문·돈의문·숙청문의 사대문이나 종묘에서 사흘간 지냈고, 그래도 개지 않으면 되풀이했다. 제를 지낼 때도 정성을 다하여, 인조는 기청제를 지내는 제문에서 “소자가 변변치 못해 노여움을 산 것인데, 아무 죄 없는 백성들에게 어찌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부디 미천한 정성을 살펴 하늘의 뜻을 돌려주시어, 완악한 음기를 몰아내고 태양을 뚜렷이 보여 만백성이 살아갈 수 있게 해주소서”라며 간절히 빌었다.

또한, 이 시기의 날씨를 보고 그 해 농사를 점쳤는데, 하늘이 맑으면 풍년이라 여기고 비가 조금만 내리면 길하며, 많이 내리면 벼가 상한다고 여겼다. 이외에도 천둥이 치면 벼의 수확량이 적고, 지진이 나면 다음 봄에 소와 염소가 죽는다고 여겼다.

농촌에서는 입추부터 가을준비를 시작했다. 참깨·옥수수를 수확하고 일찍 거두어들인 밭에는 김장용 배추와 무를 심기 시작한다. 그해 태풍으로 벼가 쓰러졌다면 벼를 일으켜세우느라 분주하다. 태풍, 장마의 잦은 발생으로 논에서는 병충해 방제를 한다. 이 무렵부터 논에서는 물을 빼기 시작하는데, 1년 벼농사의 성패가 이 때의 날씨에 달려있다고 할 만큼 중요한 시기이다. 그외에 이 시기에는 김매기도 끝나가

고 농촌이 한가해지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그래서 “어정 7월 건들 8월”이라는 말이 거의 전국적으로 전해진다. 이와 대조적으로 “밭등에 오줌 심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5월이 모내기와 보리 수확으로 매우 바쁜 달임을 표현하는 말이다.

입추에는 전어가 유명하다.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한다는 전어는 8월 입추를 전후로 생산된다. 싱싱한 제철 전어는 봄에 비해 지방질 함량이 무려 3배가량 높아 고소함을 더해준다. 여기에 기억력과 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 DHA와 불포화지방산이 다른 생선에 비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성인병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이외에도, 전어는 위를 깨끗하게 하는 효과가 있어 식탁 위의 소화제로 불리고 있다.

푹푹 찌는 무더운 여름을 나며 평소보다 물을 많이 마시고 한낮에는 시원한 곳에서 쭉쭉 쉬시고, 산으로 바다로 피서를 떠날 때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즐겁고 건강하게 여름을 나며 좀 더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가을을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덥지만 해서 언제 가을이 오나 싶지만. 언제나 그렇듯, 이 더위도 끝나고 선선한 가을이 다가옵니다.

행운과 행복

동의대학교 체육학과 신정택 교수

우리는 학창시절에 누구나 한번쯤은 잔디밭에서 내잎 클로버를 찾아보았다. 내잎 클로버를 찾으려 기쁜 마음에 바로 뽑거나 잘라서 책갈피에 보관하기도 했다. 그러나 잔디밭에 있는 세잎 클로버들은 아무 생각 없이 밟고 지나가거나 모르고 뽑았다 버린다. 그런데 내잎 클로버를 찾기 위해 뽑았다 그냥 내버린 세잎 클로버의 꽃말은 ‘행운’이다. 그래서 많이들 그것을 찾는다. 하지만 그냥 내버린 세잎 클로버의 꽃말은 ‘행복’이다. 내잎 클로버는 행운, 세잎 클로버는 행복. 수없이 많은 행복 속에서도 우린 행운만을 기다리는지 돌아봐야 한다.

Rickman 등(1978)은 심리학 저널에서 복권 당첨자와 사고 희생자의 행복 수준을 비교하였다. 복권 당첨과 같은 큰 긍정적인 사건은 행복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 효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사고로 장애를 가지게 된 사람의 행복도도 처음에는 매우 낮았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통 수준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행복과 불행한 사건은 초기에 큰 영향을 주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간의 적응력 때문에 평균적 심리 수준으로 돌아가게 된다.

최근에 국내외적 상황으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지다 보니 로또와 같은 복권을 구매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즉, 복권 당첨과 같은 행운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바꿔보자는 심리가 강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가 15일 발표한 '2017년도 복권에 대한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 이내 복권을 산 경험자는 만19세 이상 성인 인구(4200만명)의 57.9%인 24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55.9%를 기록했던 지난해보다 2.0%포인트 늘어난 수치다.복권은 소득이 높을수록 더 구매했다. 복권 구매자 10명 중 6명(59.5%)이 월 평균 400만원 이상을 버는 계층이었다. 300만~399만원은 23.0%, 200만~299만원은 11.7%, 199만원 이하는 5.8%였다. 성별로는 남자(61.8%)가 여자(38.2%)보다 복권을 더 많이 샀다.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사무직·33.7%), 블루칼라(생산직·22.6%), 자영업(20.5%) 가정주부(16.3%) 순이었다. 또 40대 23.3%, 50대 21.9%, 30대 20.6%, 60세 이상 20.0%, 20대 14.1% 순으로 복권을 구매했다.

하지만, 복권 당첨자를 대상으로 한 추적 조사 결과들을 살펴보면, 복권 당첨자의 행복은 당첨 전보다 더욱 불행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행운이 행복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럼, 큰 금액의 복권 당첨이라는 인생의 큰 행운이 왜 기대하는 만큼 행복하게 못 만들까요?

복권 당첨이 일시적으로 행복감과 큰 물질적 성취를 가져오지만, 복권 당첨에 취해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 및 절제력을 잃어버림으로써 자신의 일, 여가 및 대인관계에서 이탈하기 때문이다. 복권 당첨자 중에서도 매우 적지만 자신의 행복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는 복권 당첨 후에도 자신의 일, 대인관계, 여가활동, 봉사 등을 계속하는 경우이다. 즉, 행운보

다 일, 대인관계, 봉사 및 여가활동 등이 행복에 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시사해준다.

영국 심리학자인 리처드 와이즈먼은 행운을 가진 사람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10년간 운이 좋은 사람이 왜 그러한 생각과 결과를 얻었는지를 조사한 결과 4가지 요인이 발견되었다.

첫째	기회를 잘 찾아내는 직감을 가졌다.
둘째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낸다.
셋째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보기에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는다.
넷째	즐거운 태도로 불운도 행운으로 인식하였다.

즉, 긍정적 태도와 노력이 행운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또한, 성공한 사람들의 인터뷰 내용을 분석해보면, 공통적으로 노력(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노력한다고 해서 무조

건 성공하는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성공한 사람은 모두 노력한 사람들이다. 행운보다 노력과 빔이 자신의 성취와 행복을 결정하며, 노력과 빔을 흘

리는 사람에게 행운도 온다는 것을 기억하자. 행운을 기다기보다는 자신의 일을 즐겁게 하며 빔을 흘리고 있을 때 행운과 행복이 당신 곁에 있을 것이다.

덕광정사와 함께
四君子 배우기⑫

蘭 따라 그리기 Ⅲ

梅 蘭 菊 竹



덕광(실보사 주교)
울산미술대전,
신라미술대전,
경남미술대전,
한국화 부문 수상

1



* 바위먼저 그린다

2



3



4



완성



眞眞 짝갈비 JJÖK

매운 짝갈비 中23,000 大30,000

간장 갈비찜 中23,000 大30,000

매운 갈비찜 中23,000 大30,000

배달시간
오후 5시 ~ 새벽 1시까지



장수진(단음사교도) 010-5635-7444 / 054-332-4455 / 경북 영천시 충효로 79



불교충지중

총지종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통해 참 대승의 정신을 구현하는 생활불교 종단입니다.

총지종보

총기 47년
2018년 7월 30일
음 6월 18일

월간 발행

www.chongji.or.kr

창간년도 총기24(1995)년 10월 16일 등록번호 마 2360호 발행인 : 인선(강재훈)

The chongji news

구독문의 02-552-1080 불기 2562년 제225호



하반기 진호국가불공 종령 법어

총기 47년 하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의 회향으로서, 방생법회를 겸하여 봉행하고 있는 호국안민기원대법회에 법신비로자나부처님의 자비광명과 지혜의 광명이 가득하기를 서원합니다.



서를 유지하며 민주 시민의 의식과 정신을 함양하는 불공이 기도 합니다. 참다운 불자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사회와 가정에서 모범을 보이는 불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진호국가 49일 불

49일간의 장기불공을 무난 무탈하게 회향함은 오로지 진언행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진력과 제불보살님의 가피력에 인연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정진수행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총지종은 매년 상·하반기에 걸쳐 진호국가불공을 올리고 있습니다. 진호국가불공이란 밀교경전인 『수호국계주다라니경』에 근거한 것으로, 외적의 침입이나 나라의 혼란을 막고 국가와 국민이 위태롭지 않으며, 국민 모두가 평안해지기를 서원하는 불공이며, 창종시부터 꾸준히 행해오고 있는 불공입니다.

또한 우리 총지종은 생활불교 종단으로, 창종 이념의 본령(本領)이 기도 한 사대은혜, 즉 부모와 나라, 중생과 삼보의 은혜를 갚는 불공의 일환으로 삼고 있어 사대은혜에 보은(報恩)하는 매우 중대한 실천불공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이번 하반기 49일 불공은 전 종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남북·북미회담 원만을 지심으로 서원 불공한 바라, 더더욱 큰 의미와 보람이 큰 불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북미회담”을 통해 민족의 오랜 숙원인 남북 평화통일의 화해분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습니다.

호국이란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법과 규범을 준수하고 사회질

공을 통해, “알고 실천하면 무량보덕이 되고 모르고 행하지 않으면 무량세에 지은 악업을 더욱 증장시키는 것”이므로 참회와 실천의 불공으로서 가정마다, 개인마다, 이 불공을 통하여 속세의 업(業)의 빛을 털어내고 일체서원을 이루고 일체재난을 소멸하기를 발원합니다. 육신은 떠났지만 그 영식은 남아서 법회와 불법의 자량을 얻어 청정일념에 드시리라 확신합니다. 그 발원을 담아 49일 대정진 서원불공을 원만하게 회향하고자 함이 바로 호국안민기원대법회인 것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방생의 정신이 생활 가운데 실천으로써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곧 악업을 짓지 않고 적극적으로 선업을 짓는 것이 됩니다. 남을 헐뜯지 않고 이간양설하지 않으며, 몸과 입과 뜻으로 나쁜 일을 짓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가까이 있는 가족이나, 이웃들에게 자비심을 먼저 내어보시기 바랍니다.

일체 생령(生靈)이 너와 남이 아닌 한 몸인 동체대비행(同體大悲行)을 실천해가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도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하시길, 일체서원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서원합니다.

성도합시다. 음마니반메홀.

종령 법공 합장

총지종, 하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회향

부산 정각사, 종령 법공 대중사 “실천하는 네가지 은혜” 설법



▲ 49일 불공 회향(정각사)

불교총지종 전통밀교 수행법인 하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이 7월 15일 전국 사원에서 일제히 회향했다.

이 날 법회는 하반기 49일 불공 기간 동안 전국 서원당에서 봉행된 국가 안위를 위한 발원과 조상불공의 원만한 회향을 서원하는 자리였다.

부산 정각사에서 주교 법상인 전수의 집공으로 봉행된 회향법회에는 불교총지종 종령 법공 대중사와 해광 정사, 묘홍 전수 등 교도 500여 명이 동참하여 전국적으로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교도들의 진심이 대단함을 알 수 있었다.

종령 법공 대중사는 회향 법회에서 법어를 통해 “부모의 은혜 뿐만 아니라

나라의 은혜, 중생의 은혜, 삼보의 은혜, 이 네 가지 큰 은혜를 부처님이 우리 중생들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실천 안하고 행하지 않으면 결실이 없는 겁니다.”며 한가지라도 실천하는 불공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부단한 정진을 당부했다.

정각사 한 보살은 새로 추대되신 종령님께서 직접 방문 하시어 귀한 말씀해 주셔서 더 뜻깊은 자리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총지종은 지난 5월 28일부터 49일간 총본산 총지사를 비롯해 전국사원 서원당에서 부국강병과 조국평화통일을 염원하며 남북·북미회담 원만 서원을 추가하여 불공정진 하였다. 취재=강동화

한국불교지도자 몽골 성지순례

종단협, 한·몽 우호 증진 및 불교 발전 모색 위해 교류 진행

총기 47년 불교총지종을 포함한 한국 불교종단협의회는 회원종단 화합과 우호증진을 취지로 시작한 해외불교순례를 5회째 맞이하여 몽골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종단협은 한국과 몽골 양국 우호증진과 불교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16일부터 20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몽골을 방문했다.

울란바토르 공항에 도착한 통리원장 인선정사를 비롯한 각 종단대표들을 영접 나온 몽골 간단사 주지 밤바자브 스님은 종단협 대표단을 반갑게 맞이하고 양국 우호와 불교발전의 계기가 되길 기대했다.

17일 종단협은 몽골정부종합청사 내 영빈관에서 칼트마 바툴가 대통령을 만나 비공개로 대화를 나눴다.

칼트마 바툴가 대통령은 “체제전환 과정에서 희생된 몽골 스님을 위한 추모행사에 감사를 표하고 이를 계기로 쇠락했던 몽골불교가 다시 일어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한국대표단에 대해 소감을 전했다.

지구총공생회 몽골지부 공생청소년 센터를 방문한 종단협은 격려금과 500만원 상당의 컴퓨터를 전달했다.

지구총공생회 몽골지부 운영위원장 밋드빌게르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컴퓨터를 선물해 주셔서 아이들의 컴퓨터 교육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모든 스님들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며 감사를 표했다.

18일 종단협은 몽골불교를 수호하다 희생된 스님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위령재를 봉행했다.

몽골 정부는 1927년부터 39년까지 국가적으로 종교탄압을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1,200여 사찰을 파괴하고 18,000여 스님을 처형했다. 이 때 희생된 600여 스님의 유골이 이곳 함브러워 언덕 탑에 봉안됐다.

통리원장 인선정사는 “역사의 굴곡



과 풍파를 이겨내고 이제 다시 부처님의 가르침과 몽골불교의 문화적 전통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많은 스님들의 안타까운 희생을 비로자나 부처님께 두 손 모아 추모하고 그 자비 희생정신을 이어가길 서원합니다.”며 추모법회 소회를 밝혔다.

통리원장 인선정사를 비롯한 종단협 각 종단 대표와 몽골스님들은 희생된

스님들의 유골을 봉안한 탑을 돌며 다시 한 번 극락왕생과 몽골불교 흥흥을 기원했다.

종단협은 한 번의 위령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교를 지키기 위한 몽골 스님들의 고귀한 희생이 성역화, 장학사업 등 다양한 추모사업으로 이어지길 발원하며 성금 2천만 원을 마중물로 전달했다.

종/조/법/어

사람된 자 마땅하게 사람 덕을 애락하며
남의 선을 기뻐하고 질투하지 말지니라.

지/면/안/내

3면 호국안민기원 대법회 6면 정심사 탐방 11면 통신원소식 12면 호국안민기원 대법회 화보

참된 나를 찾는 여행

청소년이
행복해지는 세상!

제5회
청소년 바른인성
형성 프로그램

주최 불교총지종 |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모집기간

2018. 07. 16
~ 12. 15

(모집기간 중 1박2일 선택)

모집대상

(선착순)

☒ 초·중·고·대학생 (4학년이상)

☒ 중·고·대학생

☒ 팀으로 참가 (4-8명)

신청서 접수 및
참가문의

각 사원 주교 및
행사 접수처로 문의

☎ 02-552-1080~3

✉ sukkim18@hanmail.net

한마을
캠프 안내

일시 | 추후공지 (겨울방학내 2박3일 예정)

장소 | 추후공지

대상 | 나를 찾는 여행 참가자 전원

내용 | 여행 후기 발표 인성강의 문화체험





부산경남·대구경북 교구 호국안민기원 대법회

일시: 총기 47년 7월 16일

장소: 순천 청소년 실내체육관



충청,전라 교구 호국안민기원 대법회

일시: 총기 47년 7월 16일

장소: 무주 반딧불 청소년 수련원

